

Sulwhasoo

Vol.48 January/February 2012





雪

花秀



인삼씨 오일이 전하는 진한 생명력 설화수 자음생 진본유

나이를 잊은 촉촉한 피부, 설화수는 인삼의 씨앗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험거워진 피부층을 탄탄하게 하고, 어두워진 안색에 맑은 빛을 주기 위해 하나의 씨앗에서 오직 0.004ml만 얻어지는 진귀한 오일을 담았습니다. 힘을 잃은 피부에 고귀한 인삼씨의 생명력을 채워주는 자음생 진본유로 당신 안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우십시오.

Sulwha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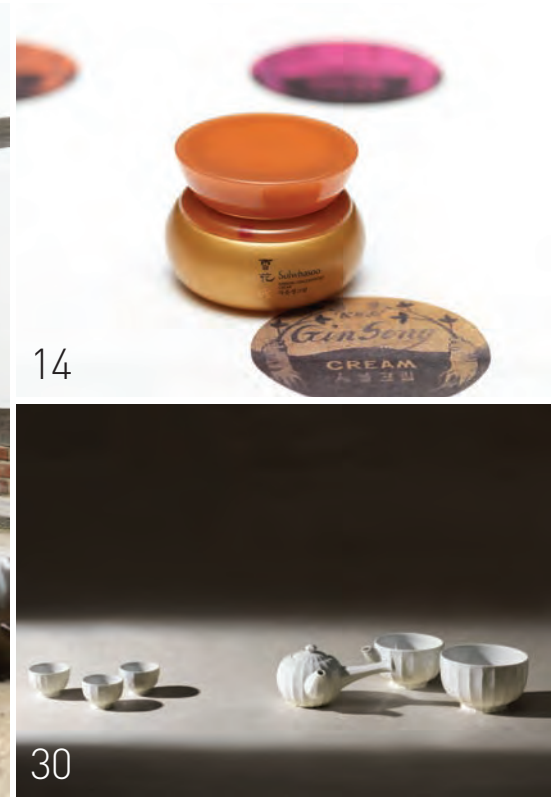


하얀 여백에서 순수함을 발견하다

The Joseon Dynasty was the time of white porcelain. It was believed that white porcelain matched the ideology of Neo-Confucianism, which emphasized that pure beauty can only be seen when the natural truth within is realized beyond the appearance. The aesthetic of white porcelain lies in the dignity and elegance of its appearance and lust without any ornament or adornment that cannot be described by the word 'white.' There is a full spectrum of white, including the white of winter snow, the white with bluish energy, and the white with the feel of gray. The white of Joseon white porcelain is the one that can embrace all. The white lust of white porcelain attracts the viewers into the images on its surface, similar to the negative space in Korean paintings. Among the various types of white porcelain, including bowls, bottles, and jars, Hap(rice bowl with lid) is the essence of emptiness and filling. The lid should match the bowl for the complete oneness of the two pieces, while the overall line and lust should also become one. This is the firm formative aesthetic of Hap that is distinguished from other types of porcelain. It also conveys the excitement of containing something invaluable for those using it.

조선 시대는 백자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물의 외양보다는 그 속에 담긴 본연의 이치를 깨달은 후에야 순수한 아름다움을 비로소 알 수 있다는 성리학의 이념에 백자가 일치한다고 보았다. 백자의 미감은 아무런 장식이나 기교 없이도 외형과 빛깔에서 뿜어내는, '백(白)'이라는 단 하나의 글자만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기품과 단아함에 있다. 겨울 눈빛이 감도는 흰색, 푸르스름한 기운이 있는 흰색, 회색에 가까운 흰색 등 흰빛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색감의 스펙트럼을 엿볼 수 있다. 조선백자의 흰빛은 모든 것을 감싸안고 아우를 줄 이는 포용력의 빛깔이다. 마치 시서화 속 여백처럼 백자의 흰 빛깔은 보는 사람을 그림 안으로 끌어들인다. 사발, 병, 항아리 등 다양한 형태의 백자 중에서도 합(盒)은 비움과 채움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위아래가 합쳐져 하나의 합이 완성되기까지, 뚜껑이 꼭 맞아떨어져야 함을 물론이고, 전체적인 선, 빛깔 등이 합일(合一)을 이루어야 함은 다른 형태의 도자들과는 다른 합만의 확고한 형태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소중한 무엇인가가 담겨 있으리라는 설렘도 함께 공존한다. S

에디터 유수아 사진 구분창 작품 김윤동



14

30

50

Sulwhasoo

January / February 2012

자연과 상생하는 빼어난 아름다움, 설화수

설화수의 시작은 바로 한방 화장품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한방 화장품의 대명사라는 명성을 얻기까지는 여성의 피부에 대한 애정과 한방 성분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만드시 우리 땅에서 움트고 자란 순수한 국산 한방 성분만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설화수의 자존심입니다.

이 땅의 좋은 약재를 찾기 위한 노력과 애환은 제품 하나하나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설화수의 이러한 역사와 철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고집과 신념을 지닌 채 계속되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상생(相生)하는 설화수의 정신은 옛 여인들이 지닌 아름다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물의 시작은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취한 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가꾸고,

자연과 하나 되는 자연과의 상생, 이것이 바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감입니다.

고은여성문화지(古恩女性文化誌) <Sulwhasoo>는 에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여성을 위한 문화 교양지를 뜻합니다.

전통적인 것이 선사하는 단아함을 현대적인 미감과 접목한 전통과 현대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다시 보는 우리 유물	선조들의 얼굴 씻기, 청자철화모란문대야	06
집 안 단장	주방에 자연을 들이다	08
몸단장	새해를 맞는 설렘, 설빔	10
한국 문화 읽기	노리개 norigae	12
피부 섬기기	인삼크림의 역사를 다시 쓰다	14
설화수와 인연을 맺다	방송인 김성경, 그녀의 행복한 도약	18
격조 높은 삶	아름답다, 지혜롭다, 맵시나다	24
미(美)를 읽다	내면의 균형에서 길을 찾은 옛 여인들의 미감	26
어우러지다	오감에서 아름다움의 근원을 찾다	30
살펴보다	겨울철 건강을 책임지는 전통 한방차	36
세계 디자인 호텔	기발한 상상력의 캔버스	38
아트 클래스	대지의 영혼, 생활의 발견, 소통에의 열망 한국과 호주의 현대미술	44
전통과 현대의 조우	새해 첫 손님을 맞이하다	50
설화문화전 장인을 만나다	마르던 마를수록 단단해지는 흙, 삶도 그랬으면	60
명사들의 그릇장	박여숙화랑 대표 박여숙 관장, 삶 가까이에 흐르는 예술을 모오다	66
휴(休)의 공간을 찾아서	조선의 왕,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쉬었을까	68
국악기행	한옥을 스튜디오 삼아 녹음한 우리 소리	74
설화도감	몸과 입이 즐겁다. 가까이에 숨겨진 보물, 자연	78
설화백서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82
설록다원	꽃향기에 취하고 그윽한 맛에 취한다	84
설화수 스파	깊은 향으로 피부의 근원을 다스리다	86
문화 즐기기	Amazing Christmas! Amazing Friends!	88
마음 단장		90
미각 단장		91
뷰티 클래스		92
전통공예 배우기		93
Insides Sulwhasoo		94
독자 선물		96



The covers of <Sulwhasoo> Magazines throughout 2012 will be the artworks from the 2011 Sulwha Cultural Exhibition. The cover of Jan/Feb issue is Hap(奩) of Porcelain Master Yun Dong Kim. Hap, made complete by two pieces becoming one, is empty when top and the bottom are divided, but forms a perfect shape when covered with the matching lid.

2012년 설화수 매거진 표지는 2011년 설화문화전 작품들과 함께한다. 1/2월호에 소개되는 작품은 도예가 김윤동의 '합(奩)'. 두 개가 합쳐져 하나의 기물을 탄생시키는 합은 위아래가 나뉘어 있을 때는 공허하지만, 뚜껑을 닫았을 때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오묘함이 있다. **에디터 유수아 사진 구분창 작품 김윤동**

●발행인 · 서경배 ●편집인 · 권영소 ●발행처 · (주)아모레퍼시픽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81번지 ●제작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 ●문의 · 최상구 02)709-5401 ●편집, 디자인 · Solution Co., Ltd. ·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85-3 남한강빌딩 3층 · Vp Marketing Dept. 02)3443-6923, www.ineighbor.co.kr 편집 · 안나량, 문비송 디자인 · 남경화 마케팅 · 윤여찬 ●발행일 · 2012년 1월 1일(통권 제48호) ●사진 · 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 · Scan Et Photoengraving IngProcess ●인쇄 · (주)태신인택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 · 서명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격월간지로서 월간 <Neighbor>를 발행하는 Solution Co.에서 제작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얼굴 씻기
청자철화모란문대야

대야는 손이나 몸을 씻기 위한 도구이다. 요즘이야 집집마다 서양식의 세면대가 설치되어 세숫대야를 대신함으로써 세숫대야가 거의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한두 개는 기본으로 구비하고 있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돌아가며 세숫대야를 이용하여 얼굴이나 손을 씻고 몸을 닦았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 목욕문화와 주택문화의 변화로 대야가 우리 곁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렇게 대야를 이용하여 얼굴을 씻는 전통은 꽤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고려 시대의 금속, 자기 대야가 남아있어 그 시대에 그러한 전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려 시대에 몸을 씻는 문화가 발달한 것과 연관이 있는데 12세기 고려의 풍속을 기록해 놓은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의하면 고려 여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먼저 목욕하고 외출을 하며 여름에는 매일 두 번씩 목욕을 하는데 시냇물 가운데서 많이 하였다. 남녀 구별 없이 모두 옷과 모자를 시내 언덕에 올려놓고 물이 흐르는 곳에서 벌거벗고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 기록에 의하면 고려인들은 집안에 세면대와 샤워실을 구비한 현대인들과 거의 유사하게 목욕하는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목욕 풍습이 발달하였으니 몸을 씻는데 사용되었던 대야가 꽤 많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도경>에 소개된 세숫대야는 주로 금속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오화세(烏花洗)는 은으로 만들어 꽃무늬가 있는 대야로 왕을 만날 때 주로 사용하였고 문양 없이 은으로 만들어진 은화세(銀花洗)도 있었다고 한다. 백동으로 만든 세숫대야인 백동세(白銅洗)도 있는데 은화세, 오화세가 무늬가 있는 반면 백동세는 무늬와 채색이 없는 것이 특징이었다. 백동과 함께 적동(赤銅)으로도 대야가 제작되었다고 전한다. 이렇게 당시 금속으로 제작된 세숫대야가 일반적이었는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려 시대 금속 세숫대야는 거의 청동대야이다.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소장 청자철화모란문(靑磁鐵花牡丹文) 대야는 고려 시대 금속으로 제작된 세숫대야와 함께 많이 제작되고 사용

되었던 도자대야이다. 이 대야는 물을 담는 부분과 손으로 잡는 부분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형태인데 크기가 일반적인 것보다는 다소 작아 여성들이 쓰지 않았나 짐작된다. 물을 받는 부분에는 모란꽃과 잎이 철화로 그려져 있고 손을 잡는 부위는 약간 비스듬하게 제작하고 네 군데에 모란잎을 간략하게 시문하였다.

철화자기의 문양은 활달하고 전면을 꽉 차게 장식하는 예들이 많은데 이 청자철화모란문대야도 그와 같은 패턴을 지니고 있다. 철화문양도 철화를 그리기만 한 것과 그리고 윤곽선을 깎은 것 두 종류로 나뉘는데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소장 대야의 경우는 철화로 문양을 그리기만 한 것이다. 청자철화문대야 외에도 현재 전해지는 청자대야는 청자에 음각문이나 상감문이 시문된 경우가 있으며 지름이 30cm 내외인 것이 일반적이다.

고려 시대에 철화자기는 중서부 지역에서 시작하여 용인서리, 경북 철곡에서도 생산되었으나 주로 해남 진산리에서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철화자기는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 경에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 기법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철화청자는 고려 시대 관요(官窯)에 해당하는 강진, 부안의 고급 청자와는 달리 태토의 질이 좋지 않아 약간 갈색으로 보인다. 해남지역에서는 매병(梅瓶)이나 장고(長鼓) 등 저장, 운반용 생활용기가 발달하였던 바 대야도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술품이 어떤 시대의 촘촘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 미술품을 가깝게 여긴다. 그런 후에는 그 물건에 대한 애정이 생기게 나뉠이다. 그때가 비로소 전통 미술품이 박물관의 전시품이 아닌 우리의 일상용품으로 되살아나는 순간이다. 대야가 불과 십여 년 전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생활문화의 변화로 잊혀져 간 기물이지만 전통역사 속 삶의 세부를 보여주는 미술품을 통해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추억하는 일은 흥미롭다.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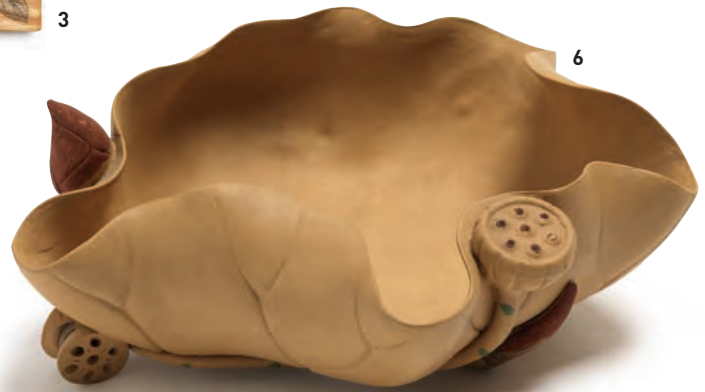
글문선주(아모레퍼시픽 미술관 학예연구실)

주방에 자연을 들이다



하루에 세 번,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주부가 머무르는 곳. 정리하고 정리해도 티나지 않는 곳, 바로 주방이다. 집안 다른 곳보다 기능적인 역할이 큰 주방은 늘 집안 단장의 그늘아래에 있다. 큰맘 먹고 진열해둔 작품은 어느새 주방용품에 밀려 한편에서 빛도 보지 못하기 일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주방용품을 찬장과 서랍에 꽂꽂 감춰둘 수도 없는 일. 여기 쾌적한 공간 유지로 식구들의 건강은 물론, 일등 주부의 살림 내공을 보여줄 수 있는 주방 단장을 제안한다. 먼저 주방에 들일 가구와 소품의 소재, 색감을 이용해 온기를 살려보자. 나무 소재 식탁과 의자, 선반을 기본으로 한 공간에 멋진 소품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주방 분위기는 화사하게 살아날 것이다. 소재 자체에서 오는 자연스러움은 물론이고, 실용적인 기능까지 겸비한 자연 모티프의 소품이 가득한 주방은 소중한 가족들에게 생활 속 즐거움과 새해의 기분을 선사할 것이다. 5

에디터 문비승 사진 문성진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윤숙현 도움 주신 곳 경신공방(02-763-1770), 뮤제아시아(02-657-9286), 반김(02-730-6968), 북촌상회(02-747-0423) 수공방(070-8210-6383), 아름지기(02-741-8374), 아원공방(02-735-3482), 옷칠사랑(042-585-5117), 정소영식기장(02-541-6480), 한국공예문화진흥원(02-733-9041)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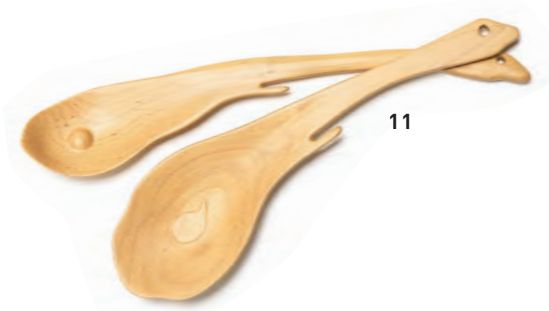


9



13

1 스와로브스키와 옛 목기를 접목시킨 함은 흥현주 작품으로 무제아시아. 2 천연 옷칠 삼감기법의 원형 함은 이경신 작품으로 경신공방. 3 탐스러운 복숭아 민화가 그려진 컵 받침은 북촌상회. 4 생생한 나뭇결이 살아 있는 박달나무로 만든 수저 세트는 정소영식기장. 5 흐르는 세월을 그대로 품은 맥감나무 접시는 양병용 작품으로 반김. 6 연잎 모양으로 만든 향꽃이는 무제아시아. 7 옷칠한 물푸레나무에 나전기법으로 새겨 넣은 국화 문양이 고풍스러운 납킨 링은 옷칠사랑. 8 소나무, 솔뿌리, 말총, 대나무 껍만으로 만든 전통 체는 백경현 작품으로 한국공예문화진흥원. 9 겨울 식탁을 따스하게 비춰줄 나무 등치 모양의 양초는 북촌상회. 10 오래된 향아리의 변신, 가지 끝에 달린 스와로브스키가 영롱하게 빛난다. 흥현주 작품으로 무제아시아. 11 고려청자의 표면에 그려진 운학 문양에서 영감을 얻은 유기적 형태의 서빙 스푼 세트. 손잡이 끝 부분은 학의 머리를, 수저 안쪽의 입체적 터치는 구름을 연상케 한다. 이룸지기. 12 옷칠에서 나오는 빛깔의 중후함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어우러진 주전자와 컵 세트는 정의선 작품으로 수공방. 13 구름과 꽃이 앙증맞은 은티스푼은 아원공방.



11



12



10

새해를 맞는 설렘, 설빔



새해 새아침에 입는 새 옷을 뜻하는 설빔은 묵은해의 다사다난했던 일들은 떨쳐버리고 새해 일년 동안 무사하고 길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각오와 마음이 담겨 있다. 특히 아이들의 설빔은 우주 삼라만상의 고운 색을 낼 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곱고 밝은 것들로 했는데, 밝은 빛깔만큼 아이들의 앞길도 곱고 밝게 트이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 또한 어른들에게는 선달 그믐날 밤에 묵은세배를 하며 설빔을 올렸는데 꼭 받은 자리에서 입어 치수를 확인한 후 새해가 되기 전에 수선했다. 어르신들의 체중을 기증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이 과정에서 버선이 발에 쉽게 들어가면 자식들은 미안해했다. 그만큼 부모님의 살이 빠졌기 때문이었던 것. 이렇듯 새해에 입는 새 옷의 의미를 넘어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설빔이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재치 있는 벵타이, 전통적인 미감의 클러치 등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는 설빔을 소개한다. 5

에디터 문비송 사진 문성진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윤숙현 도움 주신 곳 박혜리공방(02-542-4692), 북촌상회(02-747-0423), 가와코리아(02-3210-1009), 누브티스(02-735-0346), 포세르(02-737-6587), 담연(02-546-6464), 빔스토리(02-989-9355), 이원공방(02-735-3482), 메종드마리(02-735-0329), 행복한비즈질(02-730-6928)



2



3



6



4



5



7



8



9



14

1 비단 복주머니는 박혜리공방, 색동 공매듭은 북촌상회. 2 전통 문양의 클러치는 박혜리공방. 3 비단 방석은 박혜리공방. 4 전통적인 배색이 돋보이는 고급스러운 복주머니는 가와코리아. 5 2012년 용의 해를 맞아 제작된, 패턴이 익살스러운 수공예 비단 넥타이는 누브티스. 6 화려한 붉은 비단에 수놓은 지수가 인상적인 양털 조끼는 꼬세르. 7, 8 어린이용 비단 누비 토시와 양 증맞은 배지는 모두 담연. 9 색동이라는 한국 고유의 미감으로 재 해석한 책가도 명함 지갑은 장영선 작품으로 뽀스토리. 10 누비 와 은으로 제작한 목걸이는 김윤선 작품으로 아원공방. 11 양가 죽 위에 꽃 무늬를 그려진 구두는 매종드마리. 12 명주 천으로 만든 바늘집 위에 꽃 문양 자수로 멋을 낸 노리개는 정혜정 작품으로 행복한비느질. 13 조각 천을 이어 뽀, 턱, 귀를 덮기 위해 만든 방한구인 볼끼는 담연. 14 사랑방 문인들의 기쁨이 느껴지는 책 가도 다이어리는 장영선 작품으로 뽀스토리.



10



13



12



11



노리개 norigae

바람에 나부끼는 저고리 틈 사이로 수줍은 듯 춤추는 전통 장신구 노리개.

에디터 문비송 사진 문성진 도움 주신 곳 가원공방(02-2278-0250) 참고 문헌 <전통 한복의 멋 노리개> (이경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장신구의 역사> (클레어 필립스, 시공아트)

고대 문명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신구는 나라마다 여러 모양으로 이어져왔다. 역사 속 장신구들은 사람의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도구로서의 의미를 넘어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는데 머리띠, 왕관, 목걸이, 귀고리, 반지 등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문화가 꽃핀 곳이면 예외 없이 나타났다. 장신구를 통해 그 시대 문화예술을 가늠해볼 수도 있는데 서양의 르네상스부터 로코코·바로크 시대까지 화려함이 절정에 이르던 시절의 장신구들은 아름답고 눈부시며, 20세기의 장신구들은 또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동방의 나라 조선의 장신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조선 시대 여인들 또한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치장하기를 좋아했고, 세계 어느 여인들처럼 반지, 귀고리, 비녀 등은 물론 허리띠에도 장식을 곁들여 모양을 냈다.

그중 노리개는 한복 저고리의 고름이나 안고름 또는 치마의 허리춤에 차던 우리네만의 독특한 복식 문화에서 비롯된 장신구다. 진귀한 보석 등으로 몸체를 만들고 여기에 색색의 술이나 매듭을 달았는데 주장식인 주체와 띠돈(금이나 은 따위로 만든 고리를 옷고름에 걸게 만든 것), 끈, 보석, 술의 다섯 가지 요소가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색깔과 모양은 서양의 장신구 못지않은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갖췄다. 단아한 멋의 한복에 노리개를 다는 것만으로 섬세한 미감이 더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외형상 매듭이나 모양 자체가 매우 섬세하고 다채로우 장신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또한 노리개에 다는 거북, 나비, 호두 등 주체의 종류에 따라 부귀다남, 불로장생 등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여인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노리개는 단순히 한복의 맵시를 돋보이게 하는 것을 넘어 모든 물(物)에 정신이 깃들기를 즐겼던 조상들의 삶의 장신구였던 것이다. S

★ 항갑 노리개와 대심적노리개는 모두 매듭공예가 김정희의 소장품입니다.



Since the ancient civilizations, each country has developed different shapes of accessories.

In history, accessories were used to boast one's power and authority as adornments for human body. Headbands, crowns, necklaces, earrings, and rings were found in all civilizations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Accessories also represent the culture and arts of their time; the accessories from the Renaissance through the Rococo and Baroque periods were beautiful and glamorous and those from the 20th Century were considered artworks. What about the accessories of Joseon of Asia.

The women of the Joseon Dynasty loved to adorn themselves for beautiful looks. Like the women of other cultures, they ornamented the rings, earrings, hairpins, and even belts that they wore. Among them, Norigae originated from Joseon's unique wardrobe culture to be worn on the breast-tie of Jeogori(top) or on the waist of skirt. The body was made of precious gems and connected to colorful tassels or knots. The various colors and shapes created by the five elements - Dditdon(gold or silver hook to hang over the breast-tie), strap, gemstone, and tassels - make it as colorful and beautiful as any accessories of the West. Just adding Norigae to the elegant beauty of Hanbok could create delicate aesthetics and adorn the looks with very elaborate and diverse knots or shapes. Norigae, adorned with different images, such as turtles, butterflies, and walnuts, also conveyed the women's wishes to live peaceful and happy lives with wealth, many sons, youth, and longevity. Norigae was the accessory of lifestyle beyond simple enhancement of Hanbok as Korean ancestors enjoyed attaching spirits to all objects.

인삼크림의 역사를 다시 쓰다

1966년 'ABC 인삼크림'이라는 이름으로, 인삼이 지닌 화장품으로서 가능성에 포문을 연 설화수. 인삼의 효능을 담은 설화수 자음생크림은 인삼의 기운으로 피부를 보해줄 것이다.



1966년 'ABC 인삼크림'으로 시작된 첫걸음

인삼이 나는 신비한 나라 조선. 한국의 인삼은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다. 문헌상으로는 1610년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 서양에 처음 알려진 것으로 전해지는데, 특히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장 자크 루소가 인삼을 애용했다는 사실은 그의 전집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러시아의 문호 막심 고리키 역시 인삼즙을 통해 작가로서 열정을 유지한 것으로 전한다.

이렇듯 인삼의 효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로 인정을 받았으나, 화장품으로서 인삼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은 바로 아모레퍼시픽의 창업자였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1966년 'ABC 인삼크림'이었다. 이후 1967년부터 아모레퍼시픽은 인삼 중심의 한방 미용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1972년 인삼이 지닌 유효 성분 추출에 성공함으로써 다음 해인 1973년 인삼 전용 화장품 브랜드 진생삼미가 출시되었다. 1987년 설화, 1997년 설화수에 이르는 설화수의 역사는 한국의 한방 화장품의 역사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에 탄생한 설화수 자음생크림은 창업자의 인삼에 대한 믿음과 의지, 그리고 설화수가 추구하는 인삼에 대한 애정과 노하우가 집약된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자음생크림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제품력의 진화다. 인삼을 섭취했을 때처럼 피부에 발랐을 때에도 그 효과가 좋은가에 대한 연구가 그 시작이다. 이를 계기로 인삼의 효능이 최적의 상태로 피부에 전달되기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가공법이 개발되었다. 피부에 이로운 홍삼 사포닌은 고가인 데다가 극소량만 추출되기에 이를 제품에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와 연구가 절실했다. 희귀 홍삼 성분인 컴파운드 K와 진세노사이드 F1의 대량 제조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홍삼 내에서도 극소량만 존재하는 홍삼 사포닌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이는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

Joseon, the wondrous land of ginseng. Koreans were not the only consumers of Korean ginseng. According to the records, it is said that Korean ginseng was first introduced to the West by the merchants of the Netherlands in 1610. Jean-Jacques Rousseau, a renowned French thinker, wrote in his collection that he enjoyed having ginseng. Maxim Gorky, a Russian writer, also followed his passion as a writer with ginseng juice.

The efficacies of ginseng were widely popular across the world, but the founder of AMOREPACIFIC was the first person to examine the use of ginseng in cosmetics. The first step was 'ABC Ginseng Cream' released in 1966. In 1967, AMOREPACIFIC started studying signature ginseng and other traditional Korean herbs. As AMOREPACIFIC succeeded extracting active ingredients from ginseng in 1972, Ginseng Sammi, the first ginseng cosmetic brand, was released in 1973. The history of Sulwhasoo, from Sulwha in 1987 to Sulwhasoo in 1997, is the history of traditional Korean herbal cosmetic brand.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Cream, born 3 years after Sulwhasoo was launched, is the essence of the Founder's faith and determination in ginseng, and Sulwhasoo's pursuit and study of ginseng. The evolution of Concentrated Ginseng Cream is also noteworthy.

The research began with the question whether ginseng saponin would be as effective when applied on skin as it is when ingested. New technologies of processing methods were applied to deliver the efficacies of ginseng in Concentrated Ginseng Cream to skin in the optimal condition. Red ginseng saponin is expensive and extracted



인삼이 지닌 효능을 극대화한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의 뿌리에서 상층부에 이르는 다양한 원료를 제품에 담아내어 생숙의 조화를 실친했다.

는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화장품의 과학기술이 한 단계 진일보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또한 인삼을 증기에 찌서 건조시키는 방식의 연증법은 생숙의 조화를 통해 인삼을 탁월한 인삼크림으로 태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4년근 이상의 인삼에서만 열리는 붉은색의 열매인 진생베리는 피부 활성에 효능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다가 익을수록 빨갱게 변하는 진생베리는 보통의 식물처럼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인삼 뿌리가 4년근이 되었을 때만 비로소 꽃이 피고 여름 한철 탄생하는 귀하다귀한 열매이기에 인삼의 핵심 성분인 사포닌을 풍부하게 함유한 영양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인삼의 전체가 담긴 자음생크림

인삼의 뿌리에서부터 인삼의 열매인 진생베리, 그리고 인삼수(水)의 성분이 집약되어 인삼의 뿌리에서 최상부에 이르는 인삼 전체가 오롯이 자음생크림 한 병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진일보된 기술력과 제품 효능의 바탕에는 좋은 인삼이 있다. 강화, 풍기에서 엄격하게 재배된 인삼만을 선별해서 사용하는 자음생크림은 차별화된 효과를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절세미인 황진이는 인삼잎을 깨끗하게 씻어 그늘에 말렸다가 상시 차로 달여 마셨다고 한다. 또한 인삼을 연분에 섞어 발라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니, 인삼을 통해 피부 속부터 겉까지 케어하는 자음생크림의 풍부한 영양감은 피부를 촉촉하게 보해줄 것이다. 추운 겨울 꿀을 넣어 마시는 인삼차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원기를 보하고, 인삼이나 신선한 채소를 섞어 만든 인삼샐러드로 맛과 영양을 취하고, 마지막으로 설화수 자음생크림을 아침저녁 기초화장 단계에서 꾸준히 사용한다면 인삼을 통해 조화로운 피부 다스림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5

에디터 유수아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in small amounts; therefore, new experiments and studies were required to capture it for the cosmetic products. As Compound K and Ginsenoside F1, the rare substances of red ginseng, became available for mass-production, AMOREPACIFIC developed the technology to mass-produce red ginseng saponin. This technology also minimized energy consump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symbolizing the advent of next-generation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on traditional Korean herbs.

The method of steaming and drying ginseng balances the fresh and the matured to create ginseng cream with traditional Korean herbs. Ginseng berry, the red fruit that only bears on 4-year ginseng plants, is ingredient for skin vitality. Ginseng berry is green at first and becomes red as it ripens. It does not bear every year, but it only bears in summer when ginseng roots become 4 years old. As it is the most precious fruit, it is the best source of ginseng saponin.

All ingredients of ginseng, including ginseng roots, ginseng berries, and ginseng sap, are carefully extracted and contained in each bottle of Concentrated Ginseng Cream.

Good ginseng is the foundation of advanced technology and effective products. Concentrated Ginseng Cream uses strictly cultivated and processed ginseng from Ganghwa and Punggi, and will provide concentrated skin regeneration care for your skin.

설화수와 인연을 맺다

방송인 김성경, 그녀의 행복한 도약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시기. 방송인 김성경은 10년 만에 지상파에 복귀하면서 가뿐하게 새해를 열었다. 나이 마흔을 넘기면서 한결 여유로워진 방송과 인생 이야기.



묘하게도 그녀가 프리랜서를 선언한 시기도 방송 경력 10년 만이었다. 1993년 SBS 새내기 아나운서로 입사, 2002년 프리랜서로 전향하면서 활동 무대를 넓혔다. 당시 집안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했던 프리랜서를 선택한 것은 8시 메인 뉴스를 진행한 뒤쪽이었다. 아나운서로서 정상에 올랐으니 이제 내리막길을 걸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아쉬움이 커졌다. 안정적인 울타리나, 새로운 도전이나, 그녀는 어느새 양 갈래 길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장고의 시간을 거쳐 선택한 패는 '도전'. 안정적인 샐에서 체류하기보다 넓은 바다에 뛰어들고 싶었다. 그렇게 낯선 환경에서 활동하다 10년 만에 MBC <기본 좋은 날>의 메인 MC로 돌아온 것이다(물론 중간에 SBS <생활경제>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솔직히 사람들에게겐 예상 밖의 컴백이었다. 교양 프로그램을 도맡았던 그녀가 수다 만찬인 아침 프로그램으로 복귀한다는 사실이.

“전에는 스스로를 쥐어짜는 스타일이었죠. 방송을 잘해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여기에 바른 생활과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죠. 다행히 그동안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틀을 조금씩 깰 수 있었답니다.”

그녀는 10년간의 나들이를 통해 꽤 변한 듯했다. 책임감 강하고 세심한 A형의 전형이 어느새 삶을 여유롭게 변주할 수 있는 내공이라도 체득한 것처럼. 결정적 변화는 지난해에 시작됐다. 나이 마흔에 '반' 예능 프로그램인 <세대 공감 토요일>의 패널로 출연하면서였다. 고백하자면 선택이 쉽지는 않았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SBS 8시 뉴스>를 진행했던 기억이 생생했고 그 자부심은 녹슬지 않았다. 그랬던 과거의 기억을 깡그리 지우고 MC도 아니고 패널로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시련이자 도전이었다.

다행히 그녀는 '색다른' 프로그램에 합류하면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빠르게 구분해냈다. 버릴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성과 미모'라는 박제된 타이틀. 취할 것은 텔런트 조형기 씨를 비롯한 동료들의 넘쳐나는 예능 감각이었다. 이제까지 자신에게 부족했던 예능 감각을 새롭게 '리셋'하자, 그렇게 마음먹었다.

“훨씬 편안했어요. 예전에는 친해지기 전까지는 잘 웃지도 않고 농담도 안 했거든요. 자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서기 어렵다, 까다롭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죠. 지금은 제 의견을 에둘러서 전하는 여유까지 부리게 됐어요. 농담이나 장난도 먼저 건네죠.”

새로운 도전은 과감한 삭제와 첨가 사이에서 비로소 가능했다. 과거의 화려했던 이력을 지우자 새 프로그램에 적응하기가 쉬웠고 바른 사람으로서 빗장을 풀자 방송은 한결 즐거워졌다(심지어 나중에는 '허당'이란 별칭까지 얻었다). 그렇게 보낸 적응 기간이 10개월 남짓. 방송인은 프로그램 따라 변한다는 말처럼, 대쪽 같던 그녀의 성격은 어느새 고무줄처럼 유연해졌고 웃는 날이 늘었다.

어디 패널 출연뿐일까. 케이블 방송에서의 경험도 그녀에겐 에너지를 차곡차곡 충전했던 소중한 기회였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방송의 감을 유지할 수 있었고, 프리랜서로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방송인의 생태가 그렇다. 스스로 체크하지 않으면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무한정 발산하다 갑자기 방전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케이블 방송은 지상파보다 주목은 덜 받지만 방송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무대예요. 다양한 방송을 맡으면서 자신을 트레이닝할 수 있거든요. 지상파에 복귀하면서 생각보다 여유롭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의 트레이닝 과정 덕분이었답니다.”

그녀는 이제까지 20년 남짓 방송 생활을 했다. 강산이 변하고, 다시 변하는 꽤나 긴 세월이다. 그동안 그녀의 활동을 가장 든든하게 지지해준 존재는 바로 가족. 호랑이 같은 친정어머니, 닳은 듯 서로 다른 세 자매, 그 사이에서 그녀는 막내딸이자 동생으로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이는 역시나 배우로 활





동 중인 둘째 언니(김성령)와의 궁합이다. 시원 솔직한 그녀는 손사래와 함께 ‘지금은 언니와 냉전 중’ 이라면서 살짝 웃었다.

“공통점은 성격이 솔직하고 내숭을 떨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신 언니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으로 삭이지만 전 드러낸다는 게 다르죠. 살갑다가도 냉정한 사람이 언니라면 잔정이 많은 사람은 저예요. 아무래도 활동 영역이 달라서 더 그런 듯해요. 언니는 영화나 드라마를 스태프와 함께 촬영하지만 전 독립적으로 활동할 때가 많잖아요.”

중재 역할은 대부분 맏언니의 몫이다. 사실 맏언니를 떠올리면 할 얘기가 산처럼 쌓인다. 그녀가 방송에 첫발을 내디딘 것도 오로지 맏언니 덕분. 당시 첫째 언니는 대학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동생들에게 방송에 대한 환상을 심어줬다. 흥미롭고 멋진 일, 방송은 딱 그래 보였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아나운서에 응시한 것도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솔직히 대학생 때까지 엄마한테 맞고 살았어요(웃음). 친구들끼리하는 여행은 생각할 수도 없었죠. 제가 아나운서 시험을 볼 때도 엄마의 결정이 한몫했습니다. 당시 전 사귀던 사람과 헤어져 꽤나 상태였는데 엄마가 등을 철썩 때리면서 ‘떨어지더라도 일단 도전해보라’고 하셨죠. 참, 언니가 미스코리아에 나갔던 것도 엄마의 판단이셨어요. 정말이지 판단력과 추진력은 남자 못지않으세요.”

그녀는 친정어머니를 ‘기가 센 함경도 여성’으로 간단히 요약했다. 자녀 교육에 워낙 엄격한 데다 성격이 강해서 세 자매는 종종 농담 삼아 말한다. “엄마 때문에 남북통일이 쉽지 않다”고. 남자로 태어났다면 분명 한가락 했을 친정어머니는 지금도 매의 눈으로 그녀의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무엇보다 친정어머니는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삶의 메시지를 선물했다. “실패하더라도 무조건 도전하라.” 짧지만 강한 삶의 교훈은 그녀를 관통해 지금은 싱가포르에 유학 중인 아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그녀 역시 친정어머니처럼 ‘무서운 엄마’로 통한다). 최근 아들이 여자 친구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녀의 조언은 명쾌했다.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멋진 일이다. 앞으로 여자는 많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야말로 모전여전이 아닐 수 없다.

그녀는 그동안의 세월을 통해 아들에 대해서도 보채지 않는 지혜를 터득했다. 가능하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되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올해로 열다섯 살인 아들은 조금씩 자신의 판단에 무게를 두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다행히 엄마의 조언에는 귀를 기울이되 자신의 생각을 심지 있게 추진하는 멋진 아들로, 아니 남자로 성장했다.

“키가 170센티미터가 넘어서 가끔 내 아들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품 안에 키웠던 게 엇그제 같은데 말이죠. 한번은 찾길을 걷는데 애인처럼 저를 보호해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아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요. 아니면 끝없이 의지할 것만 같아서요. 아들은 분명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각자의 인생을 멋있게 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전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양을 다져주는 것에 만족해요.”

앞으로 그녀의 바람은 <나는 꿈수다>와 같은 재미있는 뉴스를 진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에게 가장 편안한 무대는 뉴스데스크. 뉴스에 대한 열망도 여전하다. 다만 기존의 형식대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은 그다지 반갑지 않다. 시사 뉴스에 자신의 농담을 채치 있게 머뭇머뭇 시청자들에게 재미있는 뉴스를 전달하고 싶다. 나꿈수의 등장을 보면서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 그녀의 ‘도전’의 패는 새해에도, 아니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하다. S

에디터 박지현(프리랜서) **사진** 박재형 **헤어** 민애선(라메뜨 재클린, 02-3448-0505) **메이크업** 정우정(라메뜨 재클린, 02-3448-0505) **스타일리스트** 인수명 **도움 주신 곳** 이틀포도밍게즈(02-540-4723), 진도모피·미니멈(02-3445-6428), 페르소나·봄주얼리(02-508-6033), 도호(02-3447-7701)

전서
복합
삽





아름답다, 지혜롭다, 맵시나다

미인이 각광받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아름다움의 조건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은 물론, 지성과 지혜를 겸비해야 하고, 손끝 발끝, 머
리카락 한 올조차도 격조와 품격이 오롯이 드러나야 하기에 미인 소리를 들으려면 나를
가꾸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될 것이다. 오감을 자극하고, 나만의 장점을 찾아 극대화하
고, 정신적인 미의 합일을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의 극치이기에.



내면의 균형에서 길을 찾은 옛 여인들의 미감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은 긴 인생 중 짧은 한 시절만을 스쳐가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은 나이를 넘어서고 시대를 초월한다. 조선 시대 여성들이 순종과 삼종지도에 얽매어 살았다고는 하나, 그들이 대대로 지녀온 지성미와 내적 균형 감각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이 존재한다.

침선과 수놓기, 여인들의 평생의 벗

한 여인이 등잔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다 그만 실수로 바늘을 부러뜨리고 만다. 오랫동안 아끼며 사랑하여 마음의 벗과도 같이 여겼던 바늘은 그녀에게 도구 이상의 의미를 지닌 물건이었고, 급기야 그 상실감을 글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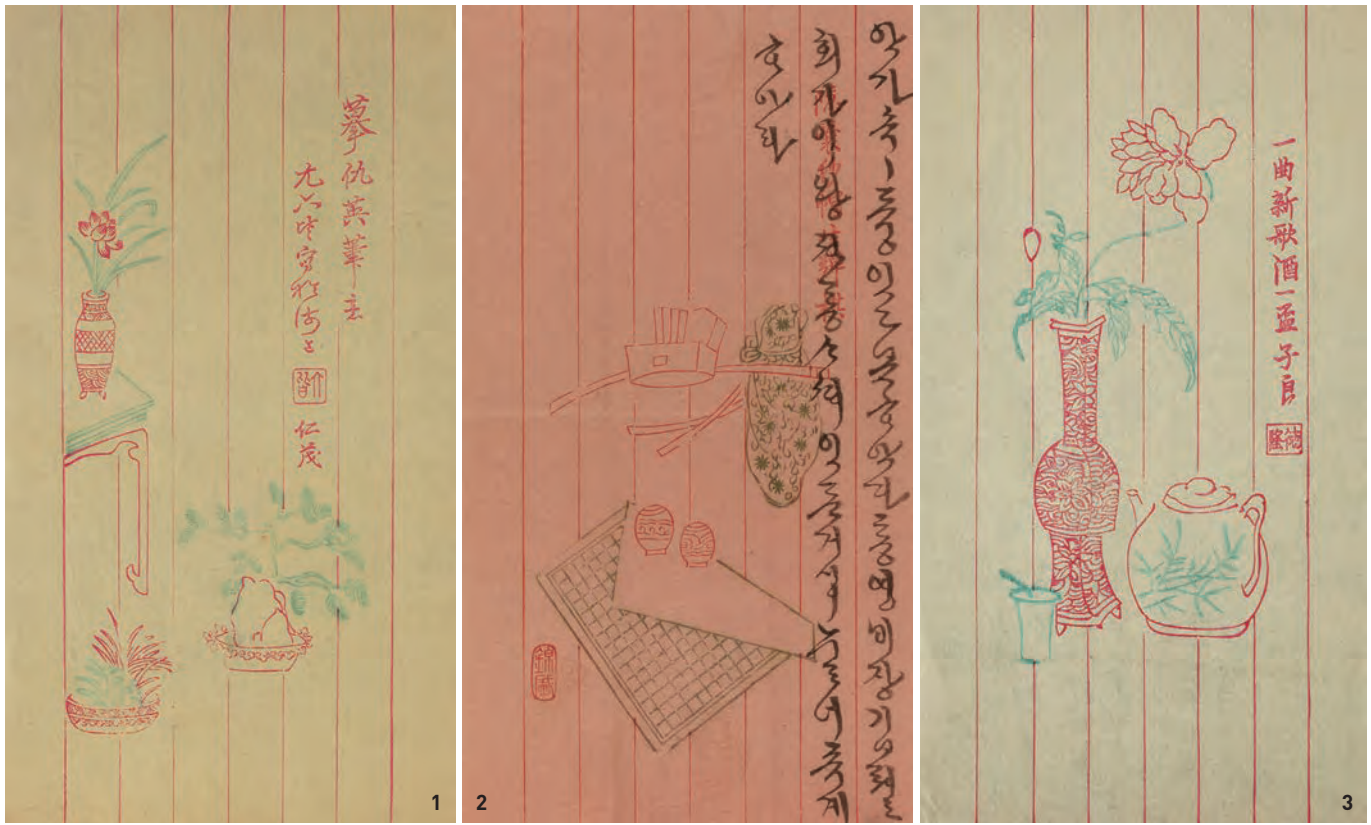
조선 시대 3대 여류수필이자 빼어난 한글 문체를 보여주는 <조침문>은 19세기 조선 순조 때 양반가 여인인 유씨 부인이 쓴 수필로, 유려한 문장과 세련된 어휘력으로 인해 고문학사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니는 작품이다. 유씨 부인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슬하에 자녀도 두지 못했던 과부로, 남편 사별 후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살바느질로 꾸려나갔다. 심신이 외롭고 살림도 풍족하지 못하며 유교 사회의 틀에 갇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도 없었던 규방의 여인, 그러나 어려서부터 양반집 여식으로서 받든한 교육을 받아 풍부한 지식과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던 그녀는 자신의 심정을 바늘에 투사해 글로 승화시킨다.

조선 시대 여인들에게 침선은 삶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V 사극에서 옛 여인들이 고운 자태로 앉아 소일 삼아 바느질이나 수놓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침선이란 순전한 '취미'의 의미보다는 평생에 걸친 여성의 주요 임무에 가까웠다. 고전 소설 <박씨전>에서 박씨 부인이 시아버지 관복을 만들고 흥배의 자수까지 완성하는 일을 하룻밤에 완성했다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침선과 수놓기는 여인들의 교양 이상이었으며, 식구들의 옷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 가정경제의 바탕이 되는 것이었기에 서민 여인들은 물론이고, 하인

을 여럿 둔 양반가 여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힘든 노동이기도 했지만, 유씨 부인의 글처럼 부녀자가 진정 마음을 붙일 수 있는 '벗'이기도 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며 여인들은 옷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한 자락 한 자락을 정갈하게 지어냈다.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다

<조침문>과 쌍벽을 이루는 고전 수필로 거론되는 것이 “이른바 규중 칠우는 부인네 방 가운데 일곱 벗이니 글 하는 선비는 필묵과 종이, 베틀로 문방사우를 삼았나니 규중 여자인들 홀로 어찌 벗이 없으리오”로 시작하는 <규중칠우쟁론기>다. 작자 미상이긴 하나 대단히 학식 높고 지적인 여인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여인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바느질을 하는 데 필요한 일곱 가지 물건들인 자, 가위, 바늘, 실, 골무, 인두, 다리미가 앞다투어 자신의 공을 자랑한다는 재치 있는 이야기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알 수 있듯 여인들이 침선과 더불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던 수단이 바로 글쓰기였다. 양반가의 서녀로 태어났던 박죽서라는 여인이 “인생의 반은 침선이었고, 반은 시였다”고 토로했던 것처럼 조선 시대가 공식적으로 여성의 학문을 금하기는 했으나 사실상 상당수의 여성들이 학식을 쌓고 글을 썼다. 조선 후기 작가인 이옥의 <심생전>이라는 작품에 “그녀가 곧 나지막한 소리로 이야기책을 읽었는데 그 음성은 피꼬리 소리처럼 낭랑했다. (중략) 그녀는 초저녁에는 소설책을 읽기도 하고 바느질을 하기도 했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중인 이상 양반 계층의 여인들이 침선과 집안일 못지않게 지성을 연마하는 데도 열심이었던 하나의 증거다.



시구나 편지를 쓰는 종이인 시전지(詩箋紙). 궁중 여인들이 즐겨 사용한 시전지는 화려한 색상과 다양한 문양으로 장식되어 여인들의 자기 지키는 면모를 엿볼 수 있다. 1 진일악호방고명전 시전지, 2 명성황후의 한글 편지로, 일상생활을 고스란히 담아낸 편지다. 3, 4 노정덕릉방고명전 시전지. 모두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 2 신사임당의 <초충도> 병풍 중 7폭 어승이와 개구리, 5폭 맨드라미와 쇠똥벌레. 모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의 누이인 하난설현의 <양간비금도>. 4 자연을 벗 삼아 독서 삼매경에 빠진 여인의 단아함이 느껴지는 윤덕희의 <독서하는 여인>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책을 많이 읽으니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지식과 안목이 풍부해지니 창작력도 탁월해졌다. 이러한 문화에서 싹튼 것이 이른바 가사 문학이다. 수많은 여성이 탁월한 가사 문학을 창작했고, 김호연재나 임윤지당 등의 여성은 비공식적인 유학자의 경지까지 올랐으며, 생활과 학사전인 <규합총서>의 저자 이빙허각 같은 걸출한 여성 실학자가 등장하기도 했다. 조선 후기 사대부 여성이 창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완월회맹연>이라는 한글 소설은 무려 180권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방대한 작품으로, 오늘날의 대하소설을 능가한다.

여성들의 지적인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 조선 시대의 독서 열풍이다. 창덕궁 낙선재에 소장되었던 수많은 장편소설을 애독한 계층이 바로 규방 여성들이다. 양반뿐 아니라 서민 여성들도 소설 읽기를 좋아해 소설책을 직접 베껴 쓰기도 하고, 도서 대여점 역할을 하는 세책가에게 빌리기도 하고, 여성들끼리 서로 빌려 보기도 하고, 소설 구연을 전문으로 하는 구연가에게 낭독을 시키기도 했다. 오죽하면 체제공이나 이덕무 같은 학자들마저 나서서 여성들이 비녀까지 팔아가며 소설책을 구해 와 탐닉하는 풍토를 염려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남성 중심주의적인 기우였을 터이다. 실제로 양반가 아들들은 독서를 즐기는 어머니를 위해 서책을 구해다 드리거나 직접 지어드리기도 했다. 또 자손들은 어머니가 아름다운 글씨체로 베껴둔 소설책을 대대로 귀하게 보존해두었다. 이러한 문화는 수준 높은 생활 예술품을 낳기도 했는데, 소설 <구운몽>의 내용을 수놓아 10첩 병풍으로 만든 '구운몽도'와 같은 예가 있다.

미의 근원은 지성미, 그리고 마음의 안정

여성들의 학구열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더욱 높아져, 양반 부인들이 실 짓고 살림하는 틈틈이 <소학>이나 <논어>를 즐겨 읽었다는 기록이 집집마다 남아 있다. 또한 여인들은 가정교육에도 적극적이어서 딸에게 <내훈> 정도는 직접 가르쳤는데, 서포 김만중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소학>을 직접 가르쳤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한편 글을 쓰는 것은 인생의 슬픔과 여성으로서 한을 극복하는 치유제가 되기도 했다. 임진왜란 전 선조 때의 어느 여인은 서른 살의 젊은 나이에 죽은 남편에게 절절한 편지를 쓰기도 했다. 실제로 수많은 옛 여인이 한글 편지를 쓰며 마음을 달랠던 것이 기록으로 전해진다. 친정 부모나 형제에게 그리운 마음을 담아 안부 편지를 쓰는 것은 그것 자체로 심적인 안정을 주는 작용을 했다. 조선 중기의 한 여인이

이웃집 여인에게 쓴 편지에는 “요사이느 작은 틈 없사오나, 긴긴밤에 책이나 보고자 하오되 (중략) 닥에 무슨 책 있삽거든 빌려주옵소서”라고 쓰여 있어 ‘긴긴밤’의 소회를 다스리기 위해 짬을 내서라도 글을 쓰고 책을 빌려 보았던 여인들의 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바느질과 책 읽기, 글쓰기를 통해 그녀들이 지향한 것은 결국 마음의 안정과 치유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인고의 시간, 묵묵히 이어온 규방 차 문화

내면의 균형을 추구한 여성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차 문화다. 조선의 차 문화 하면 다산 정약용이나 추사 김정희와 초의선사 같은 인물들의 일화와 저서를 거론하지만, 역사의 외면으로 드러난 사랑방 남성들의 다도 문화 이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규방을 통해 면면히 이어온 여성들의 차 문화 역시 존재한다.

옛날 풍속 중에 처녀가 시집갈 때 혼수 속에 차씨를 담아가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토종 차나무가 오직 씨앗으로만 번식하고 다른 데 옮겨 심으면 죽어버린다는 데서 착안해 차의 씨앗처럼 정절을 지키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 다른 땅을 마다하는 토종 차씨처럼 올곧게 마음의 심지를 지켜내는 정신을 여성들은 차 문화를 통해 구현했다. 교육받은 부녀자라면 다도를 몸에 익혀 손님을 대접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 기본이었다. 여성들의 규방가사가 발달하기 시작한 곳이 영남 유림의 고장이었는데, 이곳이 우리나라의 차 재배지 및 다도 발달 지역과도 일치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학문이 발전한 곳에서 여성의 규방문화도 꽃을 피우고 그곳에서 규방 차 문화, 즉 몸과 마음을 다해 지성과 예절을 실천하는 여성 문화도 발달했다는 얘기가.

옛 여인들이 억압을 당하기만 했을 것이라 짐작하는 것도 어찌 보면 현대인의 편견일 수 있다. 바늘과 실을 벗 삼는 틈틈이 정갈한 글씨로 책을 필사하고 차의 향을 음미하면서 그녀들은 외양보다도 내면을 바지런히 가꾸어갔다. 여성이 드러내놓고 학문을 쌓는 것이 금기시 되었음에도 이처럼 눈부신 여성 지성사가 쌓여왔으니, 여인의 미색은 금세 잊히지만 내적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은 역사의 제약마저 극복하고 강인하게 살아남았다. 5

에디터 유수아 글 한성이 참고 문헌 <조선 여성의 일생>(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글항이리), <한국의 규방 문화>(국제문화재단, 박이정),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정민, 김영사), <한국의 차문화>(이귀례, 열화당), <조침문>(구인환 편, 신원문화사)

오감에서 아름다움의 근원을 찾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한계가 있기에 자연에 대한 이해와 오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조선 시대 여인의 미의 철학이기도 하다. 걷기와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한방의 지혜를 빌려 지압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했던 여인들. 다도, 침선, 시서화, 독서 등 여인들이 실천했던 다양한 아름다움의 발자취를 더듬어본다.

에디터 유수아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도움 주신 곳 정소영식기장(02-541-6480), 담연(02-546-6464), 고흥곤국악기연구원(02-763-3508), 광주요(02-3446-4800), 취운향당(054-933-6371), 오색제담(02-566-5375), 캘리존(02-2278-7809)





명상의 벗, 다도(茶道)

차를 마시는 것은 맛을 음미하는 동시에 마음을 다스림도 함께 동반된다. 차를 한 잔 내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다선일미(茶禪一味), 차와 수행은 하나이기에 한 잔의 차로 시작하는 침선의 시간은 규방 여인들의 친근한 벗이었다. 다도 세트는 정재호 작가의 작품으로 정소영식기장.

숨겨 있는 여인의 침선 공예

침선은 조선 시대 여인들에게 여러 의미를 지닌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는 수고로운 과정 속에서 옷을 완성하는 것은 힘겨운 노동이기도 하지만, 바늘땀 속에 투영된 여인의 마음 한 자락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실땀과 두루마기 원단, 바늘방석 노리개는 모두 담연 소장품.





붓끝에 건져 올린 정서

여인들의 글과 그림은 분명 사대부의 그것과 달랐다. 사대부의 시서화가 선비라면, 여성의 그것은 따뜻하고 섬세한 여인의 손길과 같다. 역사에 남은 만큼 훌륭한 예술적 가치의 시서화에서부터 이름 모를 규방 여인의 민화나 시 등은 사대부에 뒤지지 않는 감성과 낭만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책기도 그림은 강은명 작가 작품으로 오색채담, 세필 붓은 유필무 작품, 매화 그림의 수제 도장 모두 캘리존.

자연을 담은 향

우리의 전통 향은 자연의 향취를 담고 있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맑게 한다. 여인들은 한방의 목적으로, 혹은 마음을 기다듬고 정신을 수양할 때도 항상 향을 가까이했다. 또한 향수와 향료, 노리개, 베개 등 다양한 소품을 통해 향과 벗하며 생활했다.

연잎 모양의 청자 향꽂이는 광주요, 머리를 맑게 하여 정신 집중에 효과적인 용뇌와 목향이 들어간 선향은 취운향당.





가야금 선율에 마음을 담다

어엿집 여인들과는 달리 조선 시대의 기녀들은 신분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운 풍류를 향유할 수 있었다. 시를 잘 짓고,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학식이 뛰어났던 여인들은 가야금 선율에 정서를 담아 춤과 노래로 표현하곤 했다.

순금 기루로 당초문 속에 봉황을 그린 가야금은 중요무형문화재 악기장 고희근 작품. 고희근국악기연구원.

겨울철 건강을 책임지는 전통 한방차

우리나라의 차 문화는 이미 삼국 시대에 꽃을 피우고 고려 시대에 융성했을 정도로 유서가 깊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서 차 생활을 하며 차 문화를 발달시키기 전까지 서민들은 차잎을 우려내 마시는 차보다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각종 한방 재료로 만든 전통차를 널리 즐겼다. 특히 <동의보감>이 편찬되고 그 안의 여러 처방이 민간에도 두루 알려지면서부터는 인삼이나 생강, 과일들을 말려 차로 우려내 마시기 시작했고, 재료와 노하우도 다양해졌다. 이러한 한방차는 차의 대용품인 동시에 특정한 증상을 치유하는 치료제 역할도 했다. 민간요법으로 전해 내려오던 탕이나 즈이 차의 형태로 활용된 것이다. 특히 겨울에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고 추위 때문에 건강을 잃기 쉬운데, 옛 여인들은 수백 년에 걸쳐 전수된 한방차를 미리 만들어두었다가 식구들의 몸을 보했다. 주로 겨울에 즐겨 마신 한방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인삼차와 쌍화탕 대표적인 한방차인 인삼차와 쌍화탕은 추위를 잘 타고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인삼차는 수삼, 홍삼을 오래 달여 마시는 것인데, 그중에서 인삼구기차는 인삼과 구기자, 말린 굴껍질에 꿀을 넣어 끓인 것으로 체력을 보하는 데 좋은 대표적인 약차다. 쌍화탕은 <동의보감>에 소개되어 있는 우리나라 전통 처방으로 백작약, 숙지황, 황기, 당귀, 계피, 생강 등의 재료를 일정한 분량대로 넣어 달여 마신다. 허해진 기력을 보하는 효능이 있어 조선 시대 양반들은 아침저녁으로 달여 마실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생강차와 온조탕 생강은 예로부터 한방에서 널리 쓰인 약재였는데, 설사나 복통 등 위장장애를 다스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일반적인 생강차라 하면 생강을 얇게 저며 끓여 먹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온조탕이라 하여 대추와 생강을 충분히 달인 다음 꿀을 타 마시는 차가 있다. 기력을 보하고 오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약재인 대추의 씨를 빼고 생강과 함께 푹 달여 마시는 것으로 생강차, 대추차보다 약차로서 효과가 뛰어나다.

모과차와 굴피차 제철 과일이 가장 몸에 좋듯이, 겨울에 나는 과일을 활용한 한방차도 민간에서 매년 겨울마다 애용되어왔다. 각기병을 치료하는 약재였던 모과는 기관지와 폐질환에 효과가 있어 찬 바람을 쐬어 생긴 기침을 낮게 해주는데 얇게 썰어 꿀에 재어 타 마신다. 굴로 만든 차 역시 겨울철의 대표적인 한방차로, 굴의 알맹이를 꿀에 재었다가 타 마시는 굴차가 있고, 굴껍질을 말렸다가 달여 마시는 굴피차가 있다. '진피'라 불리는 말린 굴껍질은 특히 기침감기에 효과적인 전통 한약재다. 5

글 한성이 **참고 문헌** <차를 즐기며 병을 치료하는 한방차 요법>(정진호, 청송)





雪花秀

피부에도 마음에도, 윤기를 채우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세안 후 윤조를 바르는 시간엔, 차분한 심호흡을 권합니다.
맥문동, 황기 추출물이 흐트러진 피부결을 최적의 상태로 정돈할 때,
깊고 은은한 한방 아로마가 마음을 평온하게 진정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피부와 마음의 균형을 바로잡아 윤을 끌어내는 설화수 윤조에센스로
당신 안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우십시오.

Sulwhasoo





기발한 상상력의 캔버스

코펜하겐의 폭스(Fox) 호텔은 호텔계의 신비한 행성이다. 전혀 평범하지 않은 이미지들로 엮어진 책 한 권을 쓰기 위해 20여 명의 문화 선동가이자 크리에이터들이 모였고, 그들은 놀랍고도 독특한 61개의 방을 창조했다.



1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모든 층에서 펼쳐지는 판타지. 2 방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코펜하겐의 전경. 3 미국 디자이너 그룹 프렌즈 위드 유(Friends with You)가 구상한 아지각한 분위기의 룸, 102호 알비노스 킹(Albinos King). 4 2인조 그래픽디자이너 앙투안+미뉴엘(Antoine+Manuel)의 작품인 룸 406호의 전경과 모노톤인 룸의 간결함을 살려주는 도자기 그래픽.



폭스호텔의 밤은 늘 새롭다. 이곳의 각각의 룸은 하나의 작은 세계이자 기발한 아티스트들이 창조해낸 특이한 우주이기 때문이다. 일단 호텔에 도착하면 투숙객은 실내장식이 심플하거나 화려하거나, 컬러가 진하거나 옅거나, 좀 더 파격적이거나 덜 그렇거나 등 각자 자신의 스타일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기가 묵을 룸을 선택한다. 영국인 디자이너 니콜라 카터(Nicola Carter)와 루이제 포어미탁(Luise Vormittag)의 작품인 관능적이며 호사스러운 보석 상자 같은 룸에서, 노르웨이 디자이너 김 히오르토이(Kim Hiorthoy)가 창조한 오염되지 않은 사막의 공간으로 옮겨가는 것은 대륙 횡단 여행을 하는 것처럼 마음을 동요시킨다. 그것은 단순히 호텔에서 묵는 것을 뛰어넘는 경험이다.

폭스호텔의 특징 중 하나는 예술을 사랑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인데, 창의적인 이들과 호기심 많은 이들, 상류층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각기 멋진 장르를 이룬다. 아침이 되어 식사를 할 땐 독일 지하철에서 마주칠 법한 개성 넘치는 뮤지션과 말쑥한 정장 차림의 사업가가 한데 어우러져 <헤럴드 트리뷴(Herald Tribune)> 지를 읽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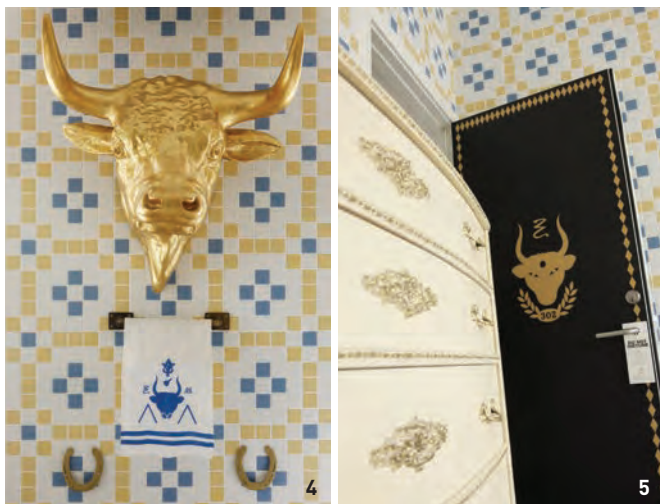
복도를 따라 걷는 사람들 사이의 인사도 독특하다. “나는 고딕 스타일의 허니문(Honey Moon)에 있는데, 당신은요?” “저는 알비노스 킹(Albinos King)이요!” “그래 그곳은 어때요?” 독창적인 이름의 룸들에서 물어나는 유머러스함에 투숙객들은 서로에게 웃음을 띤다. 투숙객들은 자기가 묵고 있는 룸을 보러 오라며 서로 초대하고, 자신들



2



3



4

5

1 익살스러운 스위스 일러스트레이터 벤야민 귀델(Benjamin Güdel)이 작업한 룸 409호 하이드(Heidi). 2, 4, 5 황소자리 별자리를 모티프로 한 프렌즈 위드 유(Friends With You)의 작품 룸 302호. 황소 오브제와 모자이크 타일 장식이 독특하다. 3 알프스의 익살스러운 비밀 공간을 담아놓은 듯한 하이드(Heidi) 룸.



1 폭스 호텔에서 빌려주는 자전거를 타고 코펜하겐을 여행할 수도 있다. 2, 3, 5 유쾌한 왕족의 공간. 영국 디자이너 니콜라 카터(Nicola Carter)와 루이제 포어미탁(Luise Vormittag)이 상상해낸 309호 시크릿 팰리스(Secret Palace). 4 그래픽이 그려진 룸 406호의 재미난 월페이퍼. 6 폭스 호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호텔 리운지. 7 바닥에 프린트된 꽃그림이 감쪽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알비노스 킹(Albinos King) 룸의 카펫. 8 룸 509호 킹스 코트(King's Court)는 완전한 바로크풍의 판타지를 보여준다.

의 취향을 주고받는다. 베니스 현대미술 비엔날레나 아트 바젤(Art Basel)에서 볼직한 모습이랄까. 마치 이쪽 설치미술 작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설치미술 작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듯이. 각각의 룸을 구경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 또한 재밌다. 나만의 취향으로 고른 자신 앞에 펼쳐진 에너지 앞에서, 더군다나 가장 기발한 스타일들이 어우러진 공간 앞에서 아무런 감명도 못 느끼기란 불가능할 듯.

처음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Volkswagen)이 작고 낡은, 별 3개짜리 호텔을 사서 그래픽아티스트, 일러스트레이터 21명을 각 층마다 자유롭게 작업하도록 후원한 것은 폭스바겐이 자동차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만큼 기발했다. 파리 그래픽아티스트 앙투안+마누엘(Antoine+Manuel)이 작업한 아주 담백한 룸이나 스위스 일러스트레이터 벤야민 귀델(Benjamin Güdel)이 요한나 슈피리의 소설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의 배경인 목장을 재현한 룸처럼, 몇몇 룸은 기존의 이미지들을 새롭게 재해석한 신선한 성공작. 현대예술이 그렇듯 폭스 호텔의 획일적이지 않은 이미지들은 기본에 충실한 미적 기준을 바탕으로 했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듯한 방들이 한데 어우러진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자유분방한 아티스트들의 상상이 가득 담긴 코펜하겐의 폭스 호텔에 목격 된다면, 그 자체로 현대예술 작품 61개를 보느라 박물관에 가는 것을 잊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룸을 고르는 것뿐! 5

에디터 문비송 글 소나 라저리(Sonia Lazzari) 사진 장마크 팔리스(Jean-Marc Palisse)







로버트 맥퍼슨, 《지저김 : 리처드를 위한 손수레, 156점의 그림, 166개의 간판》, 1999-2000. 호주의 길거리나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판에 등장하는 단어와 문구들을 채집해 재창조한 작품. 검정 바탕에 흰색 페인트로 쓴 글씨들은 호주인들에게는 일상적이되 우리 눈에는 새로워 보일 것이다. 투박하게 쓴 것 같지만 글씨들 사이의 여백조차도 작가에 의해 계산된 특유의 리듬을 타고 있으며 그 자체로 시적인 형상을 보여준다.



대지의 영혼, 생활의 발견, 소통에의 열망 한국과 호주의 현대미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텔미텔미:한국 호주 현대미술 1976~2011> 전에는 흥미로운 볼거리가 다양하다. 머나먼 남반구의 나라, 그곳의 갱거머뚱 돌멩이, 원주민의 숨결이 한국의 목소리와 어우러져 절묘한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었다. 또한 이번 전시회의 한국 측 참여 작가 중 한 명인 김홍주 작가를 직접 만나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돌, 그릇, 나무껍질, 땅의 목소리, 무당의 습결...

먼 땅의 그들과 소통하고 우리 안의 우리와 소통하다

중앙홀에서는 호주 원주민의 방패 문양을 본뜬 네온사인인 시선을 확 끈다. 전시장에 들어가자 산과 들에서 막 주워 온 듯한 돌맹이들로 이루어진 알쏭달쏭한 설치물이 눈에 띄고, 원시의 분위기가 흠뻑 풍기는 신비로운 그림들이 마력을 뿜어낸다. 웬 구닥다리 TV를 세로로 세워놓은 것은? 바로 백남준의 작품, 그것도 무려 1963년 작품이다. 캥거루와 나무, 돌, 불가사리 형상을 손뜨개로 짜서 진열한 호주 작가의 작품은 호주에 대한 동화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한국-호주 수교 50주년 기념으로 열린 이 전시는 우리나라에 앞서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호주 국립미술대학 갤러리에서 열렸다. 그러나 아담한 갤러리 느낌이 짙었던 호주에서의 전시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더 넓은 공간에 더 많은 작품들로 관객을 만날 수 있게 됐다. 1976년 시드니 비엔날레에 한국 작가들이 처음 참여하고 백남준도 시드니를 방문한 이후 35년. 강산이 세 번 반쯤 바뀌고 이제는 호주 여행도 흔해졌지만 우리는 호주에 대해, 호주는 우리에게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국립현대미술관의 김인혜 학예사와 시드니 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 글랜 바클리가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는 준비과정부터 특별해 보인다. 그들이 전시 준비를 시작하던 몇 년 전 길거리에서 흘러나왔던 유행가는 바로 윈디걸스의 '텔미텔미'. 호주 큐레이터가 "이게 무슨 노래냐?" 하며 귀를 쫑긋 세웠던 것이 이번 전시의 타이틀까지 이르게 됐다는 김인혜 학예사의 귀뜸이 재미있다.

'어보리진'이라는 원주민과 백인 이주민이 어우러져 문화를 형성한 호주의 특성을 미술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김인혜 학예사는 원주민 출신 미술가들의 작품들이 미술계에 진입하면서 빚어낸 현상임을 언



1 이우환, <상황 1>, 1975. 1976년 제2회 시드니 비엔날레 출품작. 흰 캔버스 위를 비추는 백열등에 의해 빛과 그림자, 선과 사각형과 원형의 형태들이 표현된다. 철학자 '시인'으로도 불리는 이우환의 역사적인 작품으로, 서로 다른 사물들의 단순한 만남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박현기, <무제>, 1986. 백남준이 주로 해외 무대에서 비디오아트를 선보인 데 반해, 박현기는 대한민국 땅에서 비디오아트를 이끈 선구자로 불린다. 시간성을 상징하는 돌과 모니터 안에 들어간 돌이 시간과 침식, 영원에 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3 루이스 워버, <회색 삼림감독원>, 2005. 양털과 면실 등으로 작가가 손수 코비즈질을 하여 한 마리의 귀여운 캥거루가 탄생했다. 멜버른에서 활동하는 여성 작가로, 호주의 자연에 대한 애정과 헌신이 엿보인다. 4 루이스 워버, <놀라워>, 2005. 손뜨개로 직접 짠 조약돌, 불가사리, 비버 등이 자연의 한 장면을 옮겨 온 것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이러한 자연물들은 나무에 매달린 크리스탈을 통해 다양한 각도로 투영되고 재해석 된다.





켄 언스워스, 《돌집(폴케를 따라서)》, 2011. 강변의 돌을 주위와 금속 막대
기로 이었을 뿐인 지극히 심플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형언할 수 없는 신
비로운 매력을 풍긴다. 집의 형태는 아늑해 보이고, 호주의 돌은 우리 땅의
돌과 다를 바 없이 친숙하게 다가온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과 호주 작품
을 망라하고 돌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다. 익숙했던 자연물이 미
술관 안에 들어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시간의 의미와 사물
의 동질성, 대자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다.



김홍주, <경대>, 1976



자신의 작품<무제>, 2008 앞에 선 김홍주 작가.

급한다. “호주는 ‘서브컬처’가 강한 나라예요. 때론 엘리트 문화를 조롱하기도 하고, 다문화적인 면으로 인해 오히려 타인에게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어느덧 다문화 국가로 진입했기에, 서로 다른 문화가 소통하는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다. 특히 돌이나 나무껍질 같은 자연물, 호주 사람들이 캠핑을 하고 나서 버린 그릇, 못 쓰는 율타리로 만든 작품들은 예술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일상 재료들, 간단해 보이는 개념을 가지고도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매개자가 바로 현대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김인혜 학예사는 덧붙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비디오아트 작가 박현기의 1979년 작품인 돌들과 TV가 어우러진 설치물은 자연과 시간, 삶에 대한 철학을 던져주는 듯하다. 한국의 돌과 호주의 돌, 한복을 입고 옛 노래를 부르는 한국 여인과 호주 원주민의 노래를 부르는 백인 여성, 분홍 호리병에 담긴 계룡산 무당의 입김과 호주 원주민의 주술이 담긴 나무껍질 그림, 이 모든 것은 다르면서도 비슷하고 낯설면서도 친근하다. 커다란 화면 속에서 쫓고 쫓기는 영양과 치타, 자세히 보니 영양이 치타를 쫓는 기발한 장면으로 김남조 시인의 아들인 김범 작가의 영상 작품이다. 익숙했던 것은 살짝 뒤바뀌기만 해도 낯선 것이 되고, 이질적인 것들도 마음을 열자 우리안의 것임을 깨닫는다. 천천히 전시장을 거니는 사이에 관객은 이미 호주의 문화와 깊숙이 소통하며, 나아가 우리안의 또 다른 타인과의 소통하게 된다.

호주 미술 애호가들의 눈을 사로잡은

‘꽃의 화가’ 김홍주의 섬세함과 한국적 아름다움

호주 전시 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 작품 중 하나가 바로 김홍주의 작품이다. 낯은 자개 장식이 아련한 향수를 자아내는 경대, 거울 속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여인. 김홍주의 1976년 작품 앞에서 있는데

마침 그가 도착해 자연스레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이때가 고등학교 미술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이었어요. 청계천의 고물상에서 이런 경대를 구해다가 거울만 빼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렸지요.”

거울 속 여인은 가상의 여인인데 눈 부분만은 작가 자신의 눈이라고 한다. 자화상은 아니지만 자화상 같기도 하고, 일상의 물건 같지만 작가의 터치에 의해 작품이 되었다. 이처럼 거울이나 창문을 활용해 ‘반영’ ‘투영’에 관한 작품들을 창작해냈던 그가 최근에는 커다란 캔버스에 꽃이며 나뭇잎 등을 덩그러니 담은 그림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의 소위 ‘꽃 그림’이 독특한 것은 꽃이나 이파리 하나를 가장 가는 붓을 사용해 놀랄 만큼 세밀한 터치로 오랫동안 그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가의 이야기는 의외로 ‘쿨’하다.

“사실은 붓만 빨리놓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작업해요. 자세히 보면 부분 부분이 다 달라요. 어떤 날은 물감을 진하게 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붓이 닳아 있기도 하니까요.”

이번에 전시된 그림은 멀리서 보면 커다란 꽃잎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굵이굵이 물줄기가 선으로 표현된 산의 형상이며, 선과 색채와 여백이 주는 아름다움이 한국화의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는 마치 여자가 ‘투명 메이크업’을 하듯이 세필로 바탕의 질감과 촉감을 최대한 살려 그린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은 섬세하면서도 지독스럽지 않고 보는 이를 평화롭게 해준다. 김인혜 학예사는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의 <장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손을 쓰는 행위를 통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 그것을 예술로써 실천하는 김홍주 작가의 모습을 떠올렸다고 한다. 치밀하되 편안히 흐르는 듯한 김홍주의 작품과 예술관을 통해,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심과 소통하는 진정한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S

에디터 문비승 글 한성아 사진 박재형

새해 첫 손님을 맞이하 다

이사를 하여 새로운 집으로 옮기면
서 이웃이나 친지를 초대해 집을 구
경시키고 음식을 대접한다는 의미
의 집들이. 그래서 새해를 맞아 처
음하는 집들이는 더욱 세심한 정성
과 손길로 건넨다.

에디터 유수아 사진 이종근





잔칫상에 빼놓을 수 없는 고임떡은 손님 접대의 기본 예의다. 집들이 특유의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여유틈게 즐길 수 있는 정자는 사방이 시원하게 노출되어 자연의 운치가 더해져 정겨움이 느껴진다.



오죽이란 대나무를 이용해 만든 생활용품이나 고급 가구를 말하는데, 빛이 비치는 각도와 보는 위치에 따라 색채와 무늬가 변하는 오죽만의 오묘함이 있다. 서양의 스와로브스키 역시 보는 각도에 따라 각기 다른 빛을 투영한다.

오죽 문갑은 서울무형문화재 오죽장 윤병훈, 설희수와 스와로브스키의 민담을 표현한 작품은 김윤주, 김현지.

손님을 위한 그만의 베개를 따로 준비하는 것은
손님을 접대하는 마음가짐이 남달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손님의 오감을 하나에서부터 열까
지 헤아리기 위한 세심함은 이불이나 베개 등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여겼다.
жат씨 모양에서 영감을 받은 베개는 빈콜렉션.



손님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보자기에 고이 짠 선물을 들려보냄으로써 마무리되는 집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여인의 손길은 색동 보자기에 담긴 새해에 대한 간절한 염원만큼이나 세심함과 배려가 돋보인다. 대청미루에 놓인 초충도와 화조도 민화는 기희민화공방, 소반에 놓인 처통과 사각 보석함은 금속공예가 이종길 작품, 장독대에 놓인 보자기와 잣씨 방석, 메밀 목베개는 모두 빈콜렉션.





선조들은 항상 제철 과일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면 신선한 제철 과일을 한가득 대접
하여 먹을거리가 부족하지 않게 배려했다.





선조들이 손님을 접대하던 방식과 마음은 각별했다. 차함에 평소 귀한 차를 보관해두었다가 정성껏 준비한 차상을 내는 것이다. 행여 차의 성분이 몸에 맞지 않을까 하여 독성을 기증하는 은수저를 내는 세심함을 드러내는 것도 안주인의 배려다. 설화수 정양 라인의 용기 컬러를 모티프로 한 옷철 차함은 금속공예가 박미경 작품.



혹여라도 멀리서 찾아온 손님의 거처가 불편하지 않을까,
방의 온기에서부터 향에 이르기까지 오감을 거스르지 않
으려는 세심한 손길은 마냥 바쁘기만 하다. 마당을 쉼 새
없이 쓸어내는 그 손길에서부터 느껴지는 손님맞이.
창살에 걸린 배자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우리빛깔공방의 작품, 수수
꽃버라는 이름의 다양한 크기의 빗자루는 이동균 작품.



왼쪽 이사를 하여 새로운 집으로 옮기면서 이웃이나 친지를 초
대해 집을 구경시키고 음식을 접대하는 집들이에 빠질 수 없는
시루떡. 집으로 돌아가는 이웃들에게 온기가 가지 않음 따끈
한 시루떡을 싸서 손에 건네는 정 의 문화는 마치 어머니의 그것
과 동일할 것이다.

흔히 왕골이라고 하는 원초를 엮어 만든 원초공예의 다기 세트는 정금숙 작품.

오른쪽 어머니들은 손님을 접대할 때는 언제나 그릇장에 고이
모셔둔 아끼고 아끼는 그릇을 내곤 한다. 그릇에서부터 음식, 그
리고 담음새에 이르기까지 정성으로 가득한 손님 접대 상차림
을 통해 배려를 중요하게 여겼던 선조들의 철학을 배울 수 있다.
설화수를 상징하는 꽃살 문양의 오합 먼기 세트는 박기태의 목공예 작품.

설화문화전 장인을 만나다



뚜껑을 열어두면 마치 우물 같아 두레박을
던져보고 싶다. 할머니의 꽃감이 들어가고,
들기름에 무친 어머니의 나물이 담기면 우물은
금세 돌이킬 수 없는 추억의 공간이 된다.
달항아리를 닦은 합(盆). 그 합을 닦은 작가.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 가마 속 불길 속에
함께 들어가 앓는 그를 만나보자.



미르면 마르도록,
양간해 리는 흙, 삶도 그랬으면

달항아리는 서로의 몸을
 담은 두 개가 합쳐 불
 속에서 하나의 몸이 되고,
 합은 떨어진 몸 두 개가
 포개져 하나가 된다.
 마치 우주처럼 음양의
 조화가 숨어 있는 것이
 합이니, 고로 합은 그릇의
 일종이 아니라 세상을 담은
 철학인지도 모르겠다.

“최근에 흙을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다. 그만큼 우리네 삶이 흙과 떨어져 산 지 오래되었다는 얘기가. 농부가 아닌 이상 흙을 주물러볼 일이 있겠는가. 하지만 30년 가까이 흙만 만지며 산 사람이 있다. 도예가 김윤동. 흙과 그의 오랜 인연이 시작된 건 친구 때문이었다. 서양화를 전공하려 했던 그에게 친구(도예가 신철)가 도예를 권유했고, 길긴 인연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림은 붓으로 그리지만 도예는 온몸으로 하니까 고되고 거칠어서 처음엔 무척 힘들었죠.”

차분한 어조의 그의 말투 때문인지 얼마나 고되었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허리가 아파 한 2년 동안 작업을 쉬었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노동(?)의 강도가 전달된다. 강원도 원주 사람인 김윤동의 투박한 말투와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던함’이다. 감정의 기복도 거의 없어 보이고, 바쁠 것도 서두를 일도 없는 사람처럼 느긋하다. 그런 천성 때문이었을까. 그는 긴 호흡으로 작업을 해왔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 그의 첫 개인전은 ‘분청’이었다. 하지만 2년 뒤인 1994년부터 그는 백자를 굽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의 가마에선 백자가 ‘불맛’을 보고 있다. 요즘처럼 촌각을 다투며 유행이 바뀌는 세상에 지천명을 바라볼 때까지 하나를 고집하는 그다.

“동문수학하던 후배 예닐곱이 거의 분청을 택할 때, 저만 백자를 선택했죠. 이후 백자만 구워왔지만 아직 제대로 해보지 못한 작업이 많습니다. 음각, 양각, 청화, 철화, 진사, 상감 등등 워낙 갈래가 많은 길이니깐요.”

“몇 가지만 제대로 하기에 시간도 부족하다”는 그의 말처럼 도예의 길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멀고 험한 길에 접어든 예술가는 지난 2002년, 비행기로 출퇴근하던 제주대학을 비롯해 출강하던 학교마저 그만두고 전업 작가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 10년 동안 그는 개인전을 단 한 번도 열지 못했다. 작가적 정리 없는 소모적 개인전을 열 생각도 없었고, 자신의 작업이 마음에 차질 않아서였다. 그런 그가 지난해 개인전을 연 건, ‘생각을 바꿔서’ 가능했다.

“어차피 제가 가진 조건이 옛것을 재현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거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남들 앞에 설 수 있었던 모양이다. 그가 말하는 ‘조건’이란 무얼까. 우선 도예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가마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불이 길고 센 장작가마에서 전기 혹은 가스가마로 바뀐 지 오래지 않은가. 그뿐인가. 도자의 원료인 흙도 선조들 것과는 다르다.

도자기를 만드는 흙은 섭씨 1,250도에서 잘 익을 수 있게 ‘흙 공장’에서 생산된다. 그런데 이 흙 공장에서 생산되는 흙의 배합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주종이 된 중국산 도토(陶土, 고령토, Kaolin)로 인해 전통 흙보다 색감이 밝아지기도 했다.

흙을 캐내는 일도 불을 때는 일도 ‘경제성과 편리성’에 의해 방식이 바뀐 것이다. 도자의 두 가지 핵심인 흙과 불의 성질이 변했으니, 도자를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가 바뀌는 건 당연지사일 터. 그러니 부디 그가 더 많은 개인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를….

그의 말처럼 많은 것이 변했다. 2만 원이 채 안 되던 50킬로그램 가스 한 통이 다섯 곱절이 될 동안 여전히 백자와 씨름하고 있는 그에게 변치 않는 것 한 가지가 더 있다. 지난 1986년부터 작업실로 삼은 남양주 외부읍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처음 이곳에 왔을 땐,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모두 논뿐인 한적한 시골 그 자체였죠. 세월이 흘러 풍경이 많이 변했지만, 이제 반고향이 된 듯해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역시나 무던한 사람이다. 장욱진 화백의 작업실이 근처에 있는 것만 봐도 이곳의 지세(地勢)가 창작과 깊은 연관이 있나보다고 하자, “그건 모르겠지만 누운 여인의 형상을 닮은 근처 예봉산의 지기가 세서 과부가 많고 남자들이 기를 못 편다는 말이 있다”며 웃는다.

그렇게 무던한 사람 김윤동이 백자를 고집하며 얻은 건 무엇일까. 그에게 물었더니, “청소 하나만큼은 이골이 났다”는 다소 엉뚱한 답변이 돌아온다.

“백자가 아름다운 건 희다는 색깔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백의 미를 위해 티끌 하나 용납하지 않는 청결이 요구됩니다. 그러니 청소 습관 하나는 얻은 셈이죠.”

정말이지 그의 작업실은 어느 곳과 달리 깔끔하다. 흙을 만지기 전 손을 외과 의사처럼 꼼꼼히 닦는 것도 티끌 하나 용납하지 않는 백자의 결벽 때문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디 그 작업실의 청결에만 국한된 뜻이겠는가. 그의 말줄임표 속에는 흙에 정신을 붙여넣어 하나의 조형이 되고, 그것이 불이라는 외투를 입는 과정에 정결한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숨어 있으리라.

그렇게 정결한 마음을 담아 그가 2011 설화문화전 ‘가설(假說)의 정원(庭園)’에 내놓은 작품은 백자합(盒)이다. 수많은 소재 중 합을 택한 이유가 궁금했다.

“우선 전부터 해왔던 작업이었고, 지난해부터 바닥이 넓고 키가 낮은 작품에 주목해왔던 차에 지극히 단순한 형태지만 함축적 의미가 있는 합을 골랐죠. 사실 합은 화장품을 담기도 하고 반찬을 넣어두기도 하는 일상의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관상의 대상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담는다는 의미, 채웠을 때 완성된다는 의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합을 좋아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백자는 외형적으로 치장이나 장식을 거부하는 미덕을 지니고 있고, 그런 이유에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은근한 매력을 지녔다”고. ‘비움’을 덕으로 삼은 백자에 ‘채움’의 미덕을 겸한 것이 바로 합인 것이다. 작가는 합의 형식적 특성에도 의미 부여를 했다.

“아래위를 따로 만들어서 하나로 붙이는 달항아리와 합은 닮은꼴입니다. 그래서 달항아리의 매력이 합에도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 달항아리는 서로의 몸을 닮은 두 개가 합쳐 불 속에서 하나의 몸이 되고, 합은 떨어진 몸 두 개가 포개져 하나가 된다. 암수로 나뉜 몸이 무언가를 담아 하나의 몸이 되는 합. 마치 우주처럼 음양의 조화가 숨어 있는 것이 합이니, 고로 합은 그릇의 일종이 아니라 세상을 담은 철학인지도 모르겠다.

도지는 무른 흙을 쓰면 가마에 들어갔기도 전에 주저앉는다. 또 불의 세기를 견디지 못해 찌그러지기도 한다. 사람도 그렇다. 제 풀에 쓰러지기도 하고, 거친 세파를 못 이기고 넘어지기도 한다. 사람이나 흙이나 하나의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하는 모양이다. 부디 우리도 제 무게와 불의 혼돈 속에서 자신을 추슬러 온전한 그릇이 되었으면 싶다. 김윤동, 그의 순백의 합처럼 말이다. S

에디터 최태원(프리랜서) 사진 박재형



박여숙화랑 대표 박여숙 관장

삶 가까이 흐르는 예술을 모으다

정성껏 만든 음식은 어울리는 그릇에 담길 때 빛나기 마련. 음식의 식감은 물론이거니와 실제로 담기는 그릇에 따라 음식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그릇은 단순히 도구로서 기능을 넘어 삶의 건강함을 담아내고 있는 것. 올해부터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그릇을 모으고 있는 명사들의 그릇장을 소개한다. 첫 번째로 만나본 명사는 박여숙화랑 대표 박여숙 관장.



1

1983년 개관한 이래 그 어떤 갤러리들보다 신선하고 파격적인 전시들로 화제의 중심에 섰던 박여숙 대표. 서른하나라는 젊은 나이에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내건 화랑을 선보이며 지난 28년 동안 국내 현대미술과 함께 성장해온 박여숙화랑. 박여숙화랑에서는 패트릭 휴즈, 로이 리히텐슈타인,

프랭크 스텔라 등 역량 있는 해외 작가의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수시로 만나볼 수 있다. 작품들을 지나 좀 더 들어가면 화랑에 찾아오는 손님들과 오랜 시간 마주할 수 있는 VIP룸이 있는데 그곳에서 지인들과 식사, 찻자리를 즐겨 갖는다고. 자리를 옮겨 다이닝 룸에 있는 그릇장을 소개받았다. 다양한 빛깔의 도자(대부분이 도자였다)들은 그 활용이 참 새롭다. “항아리 형식을 띤 큰 그릇에 얼음을 가득 채우고 와인을 담아놓기도 하고, 한국적인 정취가 흠뻑 풍기는 그릇에 서양식 애플타이저를 내놓기도 해요.” 외국인을 포함한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뜨겁다고. “그릇이 좋으니 맛도 좋다고 해요. 도자를 무겁다고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저의 생각은 좀 달라요.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그제 도자의 묵직한 멋이죠.”

도자 차원의 그릇을 모으게 된 계기와 시기를 묻자 의외의 답이 돌아온다. “언제부터 도자를 모으게 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린 시절부터 아름다운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것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뿐이죠. 그중 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 제 첫 번째 컬렉션이라면 초등학교 시절에 경주 안압지로 여행을 갔다가 좌관에서 구입한 500원짜리 와당(瓦當)이죠. 이모 댁이 있는 경주에 놀러 가던 당시엔 옛 시대의 도자들이 많이 발굴되었죠. 땅속에 숨어 있던 보석 같은 도자들이 아직도 기억나요.”

도자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전통적인 도자의 멋을 생활 속에 널리 알린 ‘우리그릇 려’를 선보이기에 이른다. 도자의 나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현대에 와서 그 명맥이 끊어지는 것이 안타까웠던 그녀는 전통에 바탕을 둔 현대적인 도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관상용으로 바라만 보기보다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도자들이 없을까 고민하며 작가들과 연구해 선보인 것이 ‘우리그릇 려’의 시작인 것.

복잡다단한 선택의 상황 속에서 좋은 도자를 선택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물었다. “우리 그릇의 아름다움을 지닌 것이 좋을 듯싶어요. 개인적으로 공업화된 물건보다는 도자를 추천해요. 담기는 음식의 맛도 달라지거든요. 그건 어린아이도 알죠. 둘째 딸이 초등학교 때 도자 잔에 물을 담아 마시며 ‘엄마, 난 이 컵에 마실 때 물맛이 제일 좋은 것 같아’라고 했죠. 둘째 딸은 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도 그 잔을 챙겨 갔다고. “하나를 고르더라도 각자의 취향에 맞는 걸 잘 고르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잘 고른 그릇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 물려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 가족의 역사가 되고, 취향이 되는 거예요.”

더 새롭고 빠른 것만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느린 시간과 뜨거운 불의 기운을 품은 도자는 그저 무겁고 오래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오롯이 그 시간을 견뎌낸 도자가 품어내는 건강함과 미학은 현대의 그것이 줄 수 없는 선조들의 지혜요, 대를 이어온 문화 리더들의 고귀한 취향이다. 5

에디터 문비송 사진 문성진



2

1 찻자리에서 주로 사용되는 도자 잔은 스위스 작가의 것. 나뭇결의 질감을 표현한 작품이다. 2 뜨거운 불을 이겨낸 도자가 가진 자연스러운 멋은 어떤 그릇도 가질 수 없는 매력이라고 말하는 박여숙 대표의 그릇장. 3 삼차림을 빛내줄 공간 연출시 사용되는 이현정 작가의 달항아리.



3

휴(休)의 공간을 찾아서





조선의 왕,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쉬었을까

청량음료 같은 휴식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쉼은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한 위로인 동시에 다음을 위한 에너지 충전이기도 하다. 요즘이야 쉴 곳, 쉴 거리가 차고 넘친다. 그렇다면 생존을 위한 시간도 모자랐던 우리 선조들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쉬었을까.

1 조선 개국 초창기 태종이 첫 살을 뜯 경회루, 정궁의 대표적인 공간답게 규모와 건축미가 최상급이다. 주로 중국 사신을 접대하던 외교적 공간이자, 정사에 지친 왕들의 휴식 공간이었다. **2** 아련지 연못가에 선 애련정은 4각 기둥 밖으로 난간이 둘러쳐져 있다. 정자에 앉으면 낙양으로 장식된 기둥 사이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신선의 세계처럼 아름답다. **3** 창덕궁의 존엄성은 유가의 평면이지만 건물과 첩반을 연못으로 내밀어 돌기둥으로 받쳤다. 또한 밖으로 이중 난간을 설치해 건물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천하를 다스렸던 절대자 임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들에게 과연 휴식이 무슨 의미였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조선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일은 백성만큼이나 고달팠다고 한다. 임금의 일과는 새벽 5시면 시작되었다. 대왕대비 같은 어른들에게 드리는 문안 인사를 시작으로 하루 세 번 신하들과 격론을 벌였던 경연에 참석해야 했고, 심기를 어지럽히는 상소문은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왔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는 농담 삼아 성종이나 세종처럼 많은 후궁을 거느렸던 임금들을 부러워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일종의 의무였다. 왕실의 후사 역시 임금이 책임질 의무 조항이었던 것. 행복한 일이기만 하진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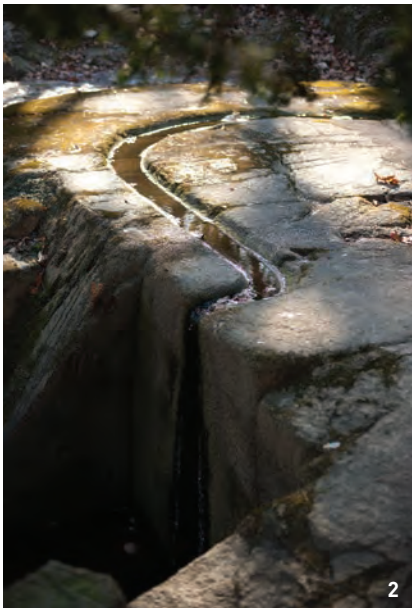
이렇듯 왕의 사생활은 왕실의 법도와 유교적 절차에 의해 극도로 통제되었다. 구중궁궐에서 바깥 세상과 격리된 왕의 일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경의 대상이 결코 아니었다. 그래서 조선 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 혹은 재위 기간이 그리도 짧았으리라. 가장 많은 업적을 남겼고,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 그는 진정한 의미의 ‘일중독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여섯 명의 부인에게서 모두 스물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역대 왕 가운데 왕자를 가장 많이 둔 임금이었다. 그런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 원래 선왕의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 국왕의 육식을 금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성리학이 강조하는 효의 문제였다. 하지만 고기를 유독 좋아했던 세종의 식성을 잘 아는 태종은 아들 세종의 육식을 막지 말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그런 사실로 미루어 세종의 에너지원은 육식이었고, 과도한 업무와 겹쳐 지병인 성인병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자, 이토록 격무에 시달리고 연이은 정쟁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고심해야 했던 조선의 왕들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휴식을 취했을까. 전국의 기생 1만 명을 모아 취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로 궁궐을 아방궁으로 격하시켰던 연산군을 제외한 대다수 왕들은 찻집과 마을을 달랠 곳이 적당하지 않았다. 선비들이야 사가독서(賜暇讀書)라는 요즘의 휴식년제 같은 긴 휴가를 즐기기도 했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으면 향리에서 한적한 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운신의 제약이 많았던 임금들은 어떤 휴식을 했겠는가. 일단 왕들에게는 궁궐이란 공간적 한계가 있었다. 궐을 빠져나가 민생을 살피는 미행(微行)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 역시 왕의 책무였지, 휴식이 될 순 없었다. 그래서 왕들은 궁궐에서의 휴식에 만족해야 했다.

조선의 정궁이었던 경복궁의 경회루(慶會樓)는 왕의 공식 쉼터였다. 편전인 사정전의 서북쪽에





1, 2 창덕궁 후원에서 가장 풍광이 뛰어나다는 옥류천과 여정에서 흐르는 맑은 물은 소요암의 폭포를 이루고, 그 옆에 자리한 소요정은 괴암과 물, 그리고 숲에 둘러싸여 한국 정자의 멋스러움을 한껏 뽐낸다. 3 후원 부용지 남쪽에 자리한 어수문과 주합루를 올려다보는 위치에 자리한 부용정. 평면은 아(亞)자형 구조로 한쪽 면이 연못 쪽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파격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부용정은 분합문을 들어 올리도록 해 한여름에 시원함을 배가했다.

위치한 경회루는 태종 12년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현재의 경회루는 고종 4년에 재건한 건물. 주로 외국 사신의 만찬을 진행한 외교 공간이었다. 못을 사방에 두르고 그가운데 섬처럼 누각을 세운 호화스러운 공간이다. 이런 호화로움을 경계했던지 태종은 “사신을 대접하기 위함이지, 내가 놀거나 편안코자 함이 아니다”란 말을 남기기도. 하지만 후대 왕들에게 경회루는 유생들을 불러 친시(親試)를 보거나, 활쏘기와 경전을 강하게 하는 장소로 유용되었다. 법궁(法宮)인 경복궁의 누각답게 경회루는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연회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큰 규모와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한다. 경복궁에서 경회루 다음으로 아름다운 휴식의 공간을 꼽으라면 향원정이 되지 않을까. 넓은 연못 한가운데 뜬 섬에 불쑥 솟은 향원정은 “다분히 인공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향원정 내부에서 바라보는 경관은 정자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왜 많은 정자가 연못 속에 위치하는가. 중국 문화권에 속한 우리 역시 신선이 거주하는 낙원의 부재에 대한 대안으로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20여 리에서 물을 끌어와 못을 파고 섬을 만들어서 방장산산(方丈仙山)에 비기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즉 신선들이 살 공간을 인공적으로라도 만들어보고자 한 것이다.

경복궁이 정궁이라곤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이후 오랜 기간 정궁을 대신한 것이 창덕궁이다. 그리고 이 창덕궁에는 조선의 자랑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후원(後苑 혹은 秘苑)이 있다. 태종이 조성하기 시작한 후원은 왕실의 정원이라 금원(禁苑)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궁궐의 북쪽에 있다 하여 북원이라 하기도 했다. 태종 때부터 잔치와 등놀이 등을 했다는 기록이 전하는 것으로 짐작 하건대 후원은 궁궐의 연회 장소로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후원은 놀이의 장소만은 아니었다. 성종 8년에는 이곳에 채상단을 쌓고 왕비가 직접 양잠을 장려하는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정사에 지친 왕들의 휴식 공간이었던 후원은 현재 모두 다섯 개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부용지를 중심으로 부용정, 주합루를 위시한 건물들로 구성된 지역이 첫째이고, 둘째는 애련지와 애련정, 그리고 연경당이 있는 지역이며, 셋째는 관람정과 그 연못, 그리고 존덕정과 연지 등이 있는 지역이며, 넷째는 지금 봐도 비경이라 아니할 수 없는 옥류천을 중심으로 소요정, 태극정이 위치한 지역이고, 다섯째는 선원전을 지은 서북쪽 지역이다. 이 다섯 개의 지역은 사시사철 비경을 자랑한다. 그래서 ‘관람춘경’ ‘망춘문앵’ ‘어수범주’ ‘관덕풍림’ 등 모두 열 가지의 빼어난 경관을 가졌다고 예로부터 일컬어왔다.

창덕궁의 후원을 거닐다 마주친 한 관리자는 “저는 내장산 단풍 구경도, 설악산 눈 구경도 안 갑니다.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라고 했다. 그렇다. 창덕궁 후원의 비경은 하나를 꼬집어 말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침저녁으로 그 모습이 다 다르고, 그 아름다움이 다 다르다. 왕들의 휴식처, 후원. 때로는 호화로운 잔치가 질펀하게 벌어졌고, 왕과 신하의 허심탄회한 밀담이 오가기도 했으며, 시름에 젖은 왕의 탄식이 흘러나왔을 후원.

가끔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공간을 부러워하는 사람을 본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단돈 몇 천 원이면 왕의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경복궁과 창덕궁이 서울 시내에 있지 않은가. 왕의 휴식을 누릴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5

에디터 최태원(프리랜서) 사진 이종근



한옥을 스튜디오 삼아 녹음한 우리 소리

K팝의 열풍이 거세다. 일본, 중국을 넘어 유럽까지 들썩인다. 그 와중에 우리 음반이 54회 그래미어워드 (GRAMMY AWARDS) Best World Music Album과 Best Surround Sound Album에 엔트리 됐다. 우리 음반 역사상 최초의 쾌거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국악 전문 음반 제작사인 악당이반이 발매한 <정가악회 풍류3, 가곡>이다. 한국인조차 잘 알지 못하는 '가곡(歌曲)'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셈이다.

판소리, 민요는 알아도 가곡을 아는 이는 드물다. 국악은 궁중음악과 민중음악으로 나뉜다. 궁중음악은 종묘제례악 등을 가리키며, 민중음악은 궁 밖의 음악 즉 민초들이 자신들을 위해 만든 곡을 뜻한다. 민중음악 가운데 가사가 있는 판소리 등이 성악곡이라면 가곡은 실내악이자 '문인악'이다. 선비들이 인생과 철학적 정신세계를 정형시에 담고 여기에 반주를 더해 시조, 가사, 가곡으로 발전했기에 문인악이란 호칭이 붙는다. 솔직히 귀로 들어도 어느 것이 가사고, 어느 것이 가곡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듯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가곡이 지난 2010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실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노래는 어느 민족에게나 있지만 고유 악보에 민족음악을 채록한 민족은 20여 개국에 불과하죠. 서양의 클래식이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건 고유의 악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땅의 전통음악 가운데 종묘제례악을 필두로 판소리, 가곡,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이렇게 모두 여섯 가지의 우리 음악이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일이다.

악방이반의 김영일 대표는 정가악회의 가곡을 "일반인이 들어서서 안 되는 음악"이라고 했다. 그만큼 어려운 장르이기 때문이다. 가곡을 국악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지레 겁을 먹지 않을 것인가.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서 느릿하게, 서양의 메트로놈에도 없는 느린 박자로 부르는 가곡의 이수대엽 같은 대목을 처음 접한 사람은 질릴지도 모른다. 시조, 가사와 가곡의 차이를 악기 구성의 차이로 설명한 그는 가곡의 경우,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단소, 장구 즉 '풀 밴드'로 악기가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민간음악의 정수라 할 가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시대 상류층인 문인들의 삶과 사유의 세계를 이해해야 하는 수고가 뒤따른다. <정가악회 풍류3, 가곡>이란 음반이 그래미상 엔트리에 든 '사건'은 주목할 일임에 틀림없

1 한옥의 마당은 하늘을 담은 우물이다. 우리 음악은 원래 사람방이나 대청마루, 혹은 마당에서 청중과 만나던 소리였다. 2 중중 때 청백리로 명성이 자자했던 손중돈이 '벼 이삭이 여무는 들판을 바라보며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정자'란 뜻을 지닌 옛집, 관가정의 전경. 3 경주 양동마을은 500년 넘게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 두 가문이 집성촌을 이룬 대표적인 양반마을이다.





1



2

다. “남의 잔치에서 전 부치는 심정으로 그래미의 문을 두드렸다”는 악당이반의 의지는 우리의 무관심에 자극된 모양이다. 이 음반의 가치는 그래미상 엔트리에 들었다는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음반이 녹음된 곳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의 관가정(觀稼亭)이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세계인의 유·무형문화유산을 하나의 음반에 담았다는 점이 이 음반의 진정한 가치일 것이다. 스튜디오가 된 관가정이 있는 양동마을은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 두 가문이 500년 넘게 살아온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역사마을이자 양반 씨족 마을이다. 그러니까 조선 선비의 문인악을 녹음하기에 이만한 곳이 없지 않다. 특히 대청마루를 내준 관가정은 종종 때 청백리로 명성이 자자했던 손중돈이 “벼 이삭이 여무는 들판을 바라보며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정자”란 뜻을 지닌 옛집이다. 마을 초입 언덕에 자리 잡아 양동마을이 내려다보이는 관가정을 무대 삼아 녹음된 이 음반을 들면, 개 짖는 소리며,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그대로 들린다.

악당이반이 만드는 앨범 재킷에는 ‘Music from Hanok’과 ‘Pure Recoding’이라는 마크가 찍혀 있다. 현장의 소리를 원 테이크로 녹음했다는 뜻이다. 사후 편집도 없으니 이 음반은 진정한 라이브다. 악당이반이 필드 레코딩을 고집하는 이유는 “한옥에서 들어야 제대로 된 소리가 들린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옥(관가정)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자연의 녹음 현장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일반 CD의 64배에 이르는 샘플링을 사용한 정보를 담아, 사람의 가청 영역을 넘어선 소리까지도 재생 가능한 SACD(Super Audio Compact Disc)는 압축과 왜곡 없는,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재현한다.

이 음반 제작에 참여한 정가악회(情歌樂會, www.jgah.co.kr)는 지난 2000년 창단된 국악 실내악단. 비를 정(正)자 대신 뜻 정(情)자를 쓰는 이 악단은 이름에서 드러나듯 권위 대신 애정을 바탕으로 시대와 호흡하는 우리 국악을 추구하는 단체다. 황순원의 소설을 원작으로 낭독 음악극이란 새로운 장르를 개척할 만큼 실험적인 동시에 전통적인 색깔을 지닌 곳이다. ‘향유’에서 ‘보존’으로 음악적 위상이 바뀐 국악에 대한 21세기적 고민을 하고 있는 정가악회는 관가정에서 선보인 여창가곡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을까. 이수대엽(二數大葉)에서 태평가(太平歌)에 이르는 아홉 곡의 가곡을 연주한 여창가객 김윤서 씨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가곡은 접근하기 어려운 장르란 생각이 든다.

“관소리는 가사 전달이 목적인 음악이라면 가곡은 선율 위주의 음악이라서 그렇다. 한 음을 11박까지 늘이기 때문에 가사 전달이 안 되어 청중 입장에서는 벽찰 것이다.”

언제 어떤 연유에서 이 특별한 음악을 하게 되었는가?

“가정 사정으로 네 살 무렵 고(故) 김월하 선생에게 맡겨져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곡을 접했고, 국악고에 진학하면서 운명처럼 이 길을 걷게 되었다.”

일반인에게는 낯선 이 음악이 관객에게는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가?

“서양음악은 심장의 음악이라고 하고 우리 전통음악은 폐장음악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호



3

흡의 음악이다. 그중에서도 가곡은 가장 느린 호흡으로 해야 하는 소리다. 돌아가신 선생님은 열 명을 가르치면 열두 명이 도망간다고 하셨다. 배우는 사람은 물론이고, 듣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까지 도망간다면, 이 소리를 하면서 느끼는 매력은 어떤 음악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느낌에 있다. 모든 것이 빨라지지만 하는 세상에 가곡은 느리기를 요구한다. 예전에는 더 느려 한 음을 내놓으면 임금이 궁궐을 한 바퀴 돌고 왔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가곡은 감정을 추슬러 잘 드러내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마지막 세 음절은 아예 소리를 내지도 않는다. 마치 한국화의 여백처럼 말이다. 하면 할수록 어렵고 알면 알수록 어려운 음악이지만 노래를 마치고 나면, 뜨거운 무엇이 치밀어 스스로를 정화시킨다는 희열을 느낀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곡 하면 '그리운 금강산'을 떠올린다. 박제된 조선 선비들의 음악이 21세기에 어떤 자리에 서길 희망하는가?

“정가악회를 통해 활동하고 있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변화가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어린 시절 가곡을 가까이해서 친근해졌듯이 어린이들에게 혹은 대중에게 가까이 가는 시도를 하고 싶다.

관가정에서의 녹음은 특별한 시도였다.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원래 우리 음악은 한옥에서 마이크 없이 자연스럽게 연주되던 소리였다. 그러니 관가정에서의 녹음은 특별한 시도가 아니라 우리 음악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됐다고 해야 옳다. 가객의 입장에서 자연과 청중을 상대로 소통하는 공연이어서 무척 만족스러웠다.” S

에디터 최태원(프리랜서) 사진 이종근

1 조선 시대 문인들의 정형시에 곡을 얹은 가곡은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단소, 장구로 악기가 구성된다. 2 원래 가곡은 남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조선 후기 들어 여류 가객들이 등장했고, 현재는 여창가객의 수가 더 많다. 고(故) 김월하 선생으로부터 가곡을 배운 김윤서 씨. 3 악당이반의 관가정 녹음 현장. 자연의 모든 소리를 그대로 담아내는 작업이었고, 그래미상 엔트리에 드는 쾌거를 거뒀다.

몸과 입이 즐겁다. 가까이 숨겨진 보물, 자연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들은 귀하고 천함을 떠나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다.
우리가 자라난 동일한 환경 조건을 견뎌온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소중한 자연을 소개한다.

매일 우리가 만나는 식탁 위 음식들은 재료에서부터 조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노동의 집합체다. 그래서 따스한 밥 한 끼의 소중함을 이는 자는 자연과 사람에 대한 감사라는 자요, 그의 인생 또한 감사할 일들이 넘치는 것을 보았다.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듯이 여기,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들어와 앉아 있는 소중한 식물들을 고운 세밀화와 함께 만나보자.

노란 잎이 거리마다 흩어질 때, 특유의 냄새가 온 골목을 뒤덮는다. 고약한 냄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딱딱한 껍질 속의 푸른 보약, 은행(銀杏) 열매의 진가를 이는 이들이다. 은행은 열매가 살구나무 열매를 닮고 흰빛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국에서는 잎이 오리 발을 닮았다고 하여 압각수(鴨脚樹)라고 하며, 또한 성장이 늦어 열매를 손자 대에 가서 얻는다고 하여 공손수(公孫樹)라고도 한다. 은행의 잎에서 추출한 성분은 예로부터 심장과 혈전에 좋다고 알려져 한방에서 약차로 사용해왔다. 이때 반드시 푸른 잎의 싱싱한 것을 골라 사용해야 한다. 푸른 은행잎 말린 것 5장에 물 300밀리리터의 비율로 섞는데, 은행잎을 얇게 썰어 넣고 끓는 물을 부어 30분 동안 우려낸 후 국물만 찻잔에 따라내 꿀을 타서 하루 한 번 마신다. 주인공인 은행 열매는 저열량, 저지방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좋고 기력 회복에 효과적이다. 흔히이는 것처럼 볶아서 먹거나 신선로와 마른 구절판 등 여러 음식에 고명과 부재료로 쓰인다. 또한 밤에 오줌을 싸는 버릇이 있는 어린이들이 잠들기 3~4시간 전에 구운 은행 4~6개를 먹으면 며칠 안에 호전된다고 한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모자람 못하다 했던가, 자양강장에 좋은 은행도 너무 많이 먹으면 중독을 일으키므로 주의한다.

아삭아삭한 질감으로 조림, 찜, 샐러드, 튀김 등에 이용하는 우영은 7~8월에 대롱 모양의 자줏빛이나 흰색 꽃이 핀다. 식용으로 널리 알

려진 우영은 약으로도 쓰이는데, 잘 익은 씨앗을 채집해 햇볕에 말린 것을 우방자(牛蒡子)라 하여 열을 내리고 독을 해독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잎에는 타닌이 들어 있어 신경통, 관절통, 류머티즘 등에 생잎을 불에 쪄서 환부에 붙이면 좋다. 우영은 흙 속에서는 온갖 세균과 벌레에 맞서기 위해 항균·방충 작용을 하며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포닌이다.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해주며 항암 효과도 있다고. 우영의 뿌리에는 당질이 풍부해 신장 기능을 높여주고, 풍부한 섬유소가 배변을 촉진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또한 우영은 차로도 마시는데 꾸준히 우영차를 마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되고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병도 예방되며, 피부 결만 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 피부까지 젊고 건강하게 한다고 하니 이쯤 되면 우영을 회춘의 묘약이라 불려도 손색없겠다.

은행이나 우영만큼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던 야생초, 갈퀴나물. 이름처럼 갈퀴 같은 딱딱한 털로 덮여 있어 다른 물체에 잘 붙는다 하여 갈퀴나물이라 불렸다. 5~6월에 피는 보랏빛 꽃이 아름다운 갈퀴나물은 향기로운 봄나물과 화려한 봄꽃에 비하면 수수하고 소박하지만 무리 지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뿌리고 심지 않아도 손쉽게 거두어 먹을 수 있다. 다만 갈수록 외래종 식물이 늘어나면서 우리고유의 자생초는 점차 사라져갈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니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면 너무나 반가운 야생초다. 한방에서는 갈퀴나물의 잎과 줄기를 산야완두(山野豌豆)라 하여 류머티즘, 관절통, 근육마비 등의 치료제로 사용한다. 식용으로는 생채로 먹거나 데쳐서 나물로 먹는데 봄철에 갓 자라난 연한 순을 따 먹는다. 데쳐서 새콤하게 무쳐 먹으면 잃었던 입맛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살아나는 기운이 느껴질 것이다. 5

에디터 문비송 사진 이종근 세밀화 그림 송훈 도움 주신 곳 아모레퍼시픽 미술관(031-283-0309) 참고 문헌 <약용식물대사전>(다나카 고우지, 동학사)



銀杏

은행

고소하게 볶아 먹거나 여러 음식의 고명으로 사용하는 은행은 잎과 열매 모두 약용해 왔는데, 잎은 심장과 혈전에 좋고, 열매는 기력 회복에 효과적이다.



牛蒡子

우엉 (우방자)

아삭아삭한 질감이 매력적인 우엉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며, 섬유소가 풍부해 다이어트와 피부미용에 효과적이다.



山野豌豆

갈퀴나물 (산야완두)

봄철에 데쳐 먹기에 그만인 갈퀴나물은 류머티즘, 관절통, 근육마비 등의 치료제로 사용한다.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피부와 제일 처음 만나는 설화수 윤조에센스는 오감을 자극하는 원천이다. 상생 호흡법을 통한 평온함, 향의 자극을 통한 심신의 안정, 나만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것.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아름다움은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처한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내려졌다. 눈썹은 진수아미(榛首蛾眉), 다소곳한 걸음걸이는 능파(凌波), 뺨은 미륵풍협(彌勒豐頰) 등 여인의 아름다움을 부위별로 세세하게 지칭하는 용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인의 전형이라 하는 춘향만 하더라도 얼굴은 '백옥같이 고운 양자(樣子)'로, 입술과 치이는 '호치단순(皓齒丹脣)'으로, 눈썹과 머리카락은 '청산 같은 두 눈썹, 흑운 같은 허튼머리'로 묘사돼 있으니, 선조들의 미인을 따지는 간간함에 혀가 절로 내둘러진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우리 선조들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만을 미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옥안홍검(玉顏紅臉), 설부화용(雪膚花容), 빙자옥질(氷姿玉質), 옥골설부(玉骨雪膚)…. 이런 말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가리키기보다는 여인의 자태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고결한 기품을 지닌 여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결국 우리 선조들은 외양뿐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미인의 조건으로 여겼던 것이다. 물론 외형적인 미의 기준 역시 현재와는 사뭇 달랐다. 넓은 이마 아래 단아하게 정리된 초승달 같은 실눈썹, 충기가 느껴지는 작은 눈, 아무진 입술. 흰칠한 키와 서구적인 눈매를 미의 척도로 여기는 현대인들의 눈에는 미인으로 인정받기는 힘들어 보일 정도다. 우리의 전통적인 미인상은 현모양처로서 생김과 덕이 드러나는 얼굴이었다.

최근 들어 미에 대한 기준이 정형화된 감이 없지 않은데, 획일화된 아름다움의 가치관에서 탈피해,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기품이 느껴지는 자태, 온화함과 지혜를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여인이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인상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토록 쉽지 않아 보이는 아름다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피부에 제일 처음 접하는 에센스이자 아름다움의 근간을 이루는 설화수 윤조에센스는 바로 설화수의 미의 철학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이다. 윤조에센스는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어준다는 기본적인 명제에서 출발해 향, 지압, 호흡 등 오감을 자극하는 벗으로 향시 곁에 두고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마치 옛 여인들이 노리개에 담은 향을 통해 아름다움을 완성했던 것처럼, 향을 통한 자극, 마사지나 지압법을 통한 감각의 극대화, 호흡법과 명상법을 통한 심신의 안정, 설화수가 추구하는 내면의 기쁨 등은 이러한 미에 대한 가치를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윤조에센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얼굴 위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소외되어 있는 감각을 찾아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수 조건인 셈. 한눈에 띄는 미인보다는 보면 볼수록 격조가 느껴지는 여인이야말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인상이다. 자신만의 고유한 멋을 발견하고,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쉽게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한순간의 결과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얼굴을 가꾸고,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는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 전통과 현대, 인간과 자연이 균형을 이루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이해와 지혜를 바탕으로 오감을 자극하고, 균형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설화수 윤조에센스가 있다. 5

윤조에센스는 단순한 에센스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제품이 아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만 혹은 다른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기에 진정한 홀리스틱 뷰티를 실천할 수 있는 여성의 벗이다. 겨울철 거칠어진 입술이나 손에 마사지하거나 향을 이용한 상생호흡법 혹은 지압법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미의 완성품이다.

꽃향기에 취하고 그윽한 맛에 취한다

그윽한 차향과 찻잔 속에 나누는 마음이 어우러진
곳엔 선인의 아련한 향기가 묻어난다.



“아침 햇살이 피어날 때, 맑은 하늘에 구름이 등실 뗏을 때, 낮잠에서 깃 깨어났을 때, 밝은 달이 시냇가에 떠 있을 때...”

한국의 석학이자 다인이었던 다산 정약용이 말한 차마시고 싶을 때다. 눈을 감고 다산이 말한 시간들을 읊조려보니 그윽한 차향이 나는 듯하다.

다산은 또한 찻자리에 따라 차맛이 다름도 전하고 있다. “바람 부는 산, 등잔 밑 따끈한 차 한잔은 지순의 향이요, 불을 지피 새 샘물 길어다 집 밖에서 달여 신령 게 올리는 차는 백토의 맛이다. 꽃 청자 홍옥 잔을 쓰던 노국공의 사치에 따를 수 없고, 돌솥에 푸른 연기 지피는 검소함은 한비자에 미치지 못하나 게 눈이니 고기 눈이니 하는 옛 선비들의 흥취를 부질없이 즐기는 사이에 궁궐의 용단 봉병은 이미 다 없어져 버렸다”고 하며 고급 차가 아니라도 남은 차가 있으면 보내달라는 글을 임금에게 올리는 소(疏) 형식으로 써서 친진스럽게 차를 구걸했다. 현대에 와서 누군가 다산의 편지를 받았다면 이토록 차를 사랑하는 이에게 남은 차가 아닌 좋은 차를 보내주고 싶을 터. 하물며 우리 집을 방문한 반갑고 귀한 손님에게 드릴 차는 고이 아껴둔 차를 대접하고 싶은 것이 우리네 마음이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이든, 어제도 보았지만 늘 살갑게 만나는 이웃이든 기분 좋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찻자리엔 그윽한 차향과 찻잔 속에 나누는 마음의 향기가 어우러질 것이 분명하다.

오설록 제주난꽃향그린티는 그런 향기 나는 자리에 어울릴 고급 차다. 노란 꽃잎이 싱그러운 마리골드와 제주 한란향이 담긴 색다른 녹차로, 찻잎이 머금은 잔잔한 꽃향기가 특별한 풍미를 준다. 섭씨 15도에 이르는 연평균 기온과 풍부한 강수량으로 차나무가 자라기에 최적의 기후조건을 갖춘 제주도의 자연 환경. 여기에 맑고 깨끗한 자연을 오롯이 품은 찻잎을 내기 위해 유기 화학비료를 쓰는 대신 친환경 제제를 이용해 병충해를 없애고, 잡초를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제거하는 오설록의 노력이 만난 오설록 제주난꽃향그린티. 따뜻한 물에 우려낸 푸른 녹차의 빛깔과 마시기도 전에 느껴지는 꽃향기는 찻자리의 또 하나의 묘미가 될 것이다. 다산은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할 적에 주변 선비들을 모아 ‘죽란시사’라는 시 동인회를 만들고 그 모임의 시기를 사계절로 정했다. 잔설이 남아 있는 매화 필 적에 만나 매화차 한잔에 시를 띄우고, 복사꽃이 필 때 만나 도화차를 마셨을 것이다. 난초꽃 도도할 때 칼날 같은 난잎을 붓끝에 피우며 차 겨루기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인고의 꽃으로 상징되는 국화꽃이 필 무렵엔 국화차 한잔 기울이며 음풍농월만이 아닌 삶 속의 멋과 맛, 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겼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찻논이 내리면 만나 따뜻한 황차(黃茶) 한잔을 마시는 소박한 정경이 풍경처럼 그려진다. 그의 찻자리야말로 우주가 디자인한 서정적인 찻자리가 아니었을까. 5

에디터 문비송 사진 문성진 스타일리스트 최서운 어시스턴트 손예희, 윤숙현 도움 주신 곳 경신공방(02-763-1770), 북촌상회(02-747-0423), 정소영식기장(02-541-6480) 참고 문헌 <찻자리, 디자인하다>이연자, 오픈하우스



위 푸른 녹차의 빛깔과 잔잔한 꽃향기로 오감이 즐거운 오설록 제주난꽃향그린티. 닥나무, 펄프 종이로 제작한 뒤, 부분 옷칠을 한 접시는 김경신 작품으로 경신공방, 은과 대나무로 만든 차 거름망은 박미경 작품으로 북촌상회, 왼쪽 단아한 청화백자자기 세트는 정재효 작품으로 정소영식기장.

설화수스파

깊은 향으로 피부의 근원을 다스리다

고귀한 피부에 진상하는 보배로운 한방 트리트먼트의 진수를 보여주는 설화수스파. 한방을 통해 균형을 찾고, 아름다운 향이 스민 제품을 통해 피부의 감각을 하나하나 일깨워준다.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고귀한 한방 성분으로 심신을 보양해주는 설화수 스파가 새 단장을 했다. 눈부신 외관을 지나 영상 스크린을 통해 설화수 제품의 4대 미향인 인삼, 소나무, 매화, 동백이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산천이 품은 거의 정수인 인삼, 사시사철 늘 푸르고 가장 한국적인 기품을 지닌 소나무, 고고한 여인처럼 조용하고 청초한 향기의 매화, 열정적인 한국 여인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품은 붉은 동백. 한국의 자연에서 비롯된 설화수가 지닌 아름다움의 가치를 보여주는 영상을 넘어 네 가지 원료의 그윽한 향기가 나는 듯했다.

새 단장으로 더욱 고급스러워진 설화수 스파에서 우혜선 씨를 만났다. 수줍은 듯 밝은 미소를 머금은 그녀. 맑고 깨끗한 피부지만 한때는 민감한 피부 때문에 자주 트러블이 생겼는데 지금은 설화수 제품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해주고 있다고. 친절하고 꼼꼼한 피부 타입 확인과 피부 고민 상담을 마친 그녀에게 설화수 스파의 전문 테라피스트는 부족한 곳에 영양을 집중 공급해 피부 균형을 바로잡는 페이스 트리트먼트인 명안 프로그램 중 고영양 트리트먼트를 추천했다. 고영양 트리트먼트는 자음생크림과 홍삼 마스크로 피부에 인삼의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과정으로, 진설 라인을 쓰고 있지만 크림만은 자음생크림을 쓰는 그녀에게 맞춤 케어인 듯했다.

따뜻한 차를 대접받은 그녀에게 테라피스트는 백자함에 각각 담겨 있는 한방 아로마 에센셜 에센스 네 가지의 향을 하나씩 선보이며 가장 좋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향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 몸의 컨디션을 알 수 있단다. 내 몸의 상태에 따라 좋게 느껴지는 향이 있다니 신기하다며 매화 향, 백단 향, 솔잎 향, 침 향 중 그녀가 고른 것은 불면증과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는 그윽한 매화 향. 이어 조선 시대 왕실에서 양명술(養命術)의 하나로 행해졌던 건포마찰로 트리트먼트를 시작했다. 이때 직접 선택한 한방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마른 천에 묻혀 마사지함으로써 트리트먼트의 효과를 높이고 오감을 일깨운다고. 트리트먼트가 끝난 후에는 다양한 향의 차 중 그녀가 받은 케어를 보양해줄 국화차를 마시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예민한 피부라 걱정이 앞섰는데 편안한 전문 케어와 설화수 제품을 통해 피부 깊은 곳에서부터 차고 오르는 건강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그녀. 설화수를 통해 지극히 개인적이기에 명민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보아야 하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 즐겁다는 그녀에게서 고귀한 여인의 향기가 느껴졌다. 5

에디터 문비송 사진 이은숙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도움 주신 곳 설화수 스파(02-411-0262)



자음생크림과 홍삼 마스크로 인삼의 영양을 공급받는 고영양 트리트먼트 케어를 받은 우혜선 씨.

구분	프로그램	내용	시간	가격
시그니처	설화본생	자음생크림을 단계별로 적용한 전신 관리	130분	30만 원
	진설	진설라인을 단계별로 적용한 전신 관리	140분	40만 원
페이스	균형회복	피부에 수분과 영양 공급	60분	10만 원
	순환회복	설화지 마스크를 이용한 수분 관리	60분	10만 원
	모공정화	한방 스크럽과 백토 마스크로 각질과 피지 관리	80분	15만 원
	예민진정	백자 도구로 예민한 피부 진정	80분	15만 원
	안색개선	옥죽과 당나무를 반죽한 미백 경단으로 안색 관리	80분	15만 원
	탄력개선	옥과 호박 도구를 이용해 피부 탄력 개선	80분	15만 원
	집중미백	색소침착과 불균일한 피부 톤 관리	100분	20만 원
	고영양	홍삼 마스크로 인삼의 영양분 공급	100분	20만 원
	주름관리	지함크림과 옥으로 깊은 주름 관리	100분	20만 원
	노화방지	골드 패치와 홍삼의 조화로 피부 재생 촉진	110분	25만 원
	호르몬균형	복부 핫 마스크로 여성 질환 관리	110분	25만 원
	얼굴윤곽	냉온냉 요법으로 얼굴 라인 관리	110분	25만 원
바디	집중재생	피부 재생력과 순환을 촉진시키는 관리	110분	25만 원
	설화유	땀 등과 어깨를 집중적으로 이완시키는 바디 관리	60분	15만 원
	백자	차기운 백자로 피부 탄력 개선	60분	15만 원
	바디랩	설화유 바디랩으로 전신에 수분과 영양 공급	70분	18만 원
	자음단불	따뜻한 자음단, 자음보위단 볼로 신체 균형 관리	70분	18만 원
	진생유	진생유 바디랩으로 전신에 고농축 인삼 성분 공급	70분	20만 원
	금박	골드 패치로 바디 관리	70분	20만 원
하체개선	하체 군살 슬리밍 관리	80분	20만 원	

설화수 스파는 롯데백화점 잠실점 4층에 위치하며,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문의 02-411-0262



겨울 추위도 녹이는 훈훈한 감사의 콘서트 Amazing Christmas! Amazing Friends!

아모레퍼시픽이 한남동 블루스퀘어 콘서트홀에서 '2011 Asian Beauty Club Culture Event'를 개최했다. 올해 최고의 가수 4인과 조인성, 고소영 등 어메이징한 친구들과 함께한 어메이징한 콘서트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고마운 사람이 있다는 것,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은 감사를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이며 자랑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아모레퍼시픽이 연말을 맞아 소중한 고객들을 초대해 한남동 블루스퀘어 콘서트홀에서 '2011 Asian Beauty Club Culture Event'를 개최했다. 올해 최고의 가수 4인(바비킴, 박정현, 김조한, 싸이)의 공연으로 진행된 <Amazing Christmas! Amazing Friends!> 콘서트를 마친 것이다. 500여 명의 고객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산타클로스 모자를 쓴 진행 요원에서부터 모든 테커레이션까지, 연말연시의 설레는 기분이 가득하도록 꾸며졌다. 초대된 고객 모두가 미리 느끼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상기된 표정이었다. 콘서트홀을 찾은 고객 중 박미배 씨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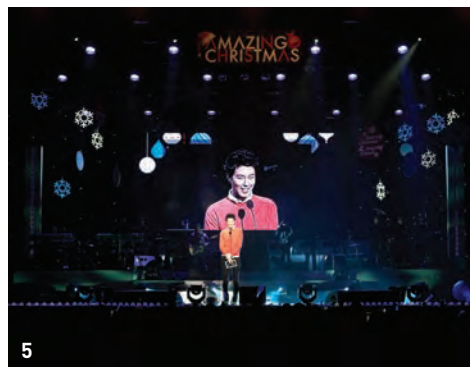
인터뷰를 나눴다.

친구와 공연장을 찾은 그녀는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설 화수와 함께했다고. 개인 농장을 운영하는 등 사업으로 바쁜 생활을 한다는 그녀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력 있는 피부를 지니고 있었다. 특별한 케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여름에도 설화수의 기초 제품들을 꼭 꼼꼼히 바르는 것이 동안 피부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그녀. 그녀와 인터뷰가 끝나자 오늘 콘서트의 초대 손님 중 한 명인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최시원이 도착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흥겹 풍기는 포토 존 앞엔 고객들의 함성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아모레퍼시픽이 마련한 또 하나의 깜짝 이벤트였던 것. 이윽고 도착한 영화배우 한지민, 고소영의 인사가 이어졌고 고객들은 안내 방송에 따라 콘서트홀로 입장했다.

경쾌한 영상이 콘서트의 시작을 알렸고 아모레퍼시픽 모델인 조인성의 연말 감사 인사와 가수 소개를 시작으로, 지난해 가수들의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큰 사랑을 받은 바비킴, 박정현, 김조한 그리고 싸이의 공연이 시작됐다. 바비킴이 리메이크해 불러 화제가 되었던 '골목길'을 시작으로 바비킴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그룹 부가킹즈의 멤버들도 자리에 함께해 신나는 무대를 꾸몄다. 이윽고 R&B의 요정이라 불리는 박정현의 아름다운 노래들이 계속되었고, 김조한의 감미로운 노래로 공연장의 열기는 더해졌다. 에너지 넘치는 싸이의 퍼포먼스가 가득한 무대를 끝으로 모든 공연이 끝났지만 관객들의 웃음은 그칠 줄 몰랐다. 콘서트 이후로 이어진 사 인회가 있었기 때문.

소중한 고객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정성의 마음을 담은 특별한 선물 '2011 Asian Beauty Club Culture Event'에 가득 담긴 가슴 벅찬 감동은 몸 안의 균형을 찾고 감각을 하나하나 일깨우는 총체적 아름다움을 꿈꾸는 아모레퍼시픽의 어메이징한 선물의 시작이었다. 어메이징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어메이징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S

에디터 문비승 사진 이기원



1 콘서트가 열린 한남동 블루스퀘어 콘서트홀의 모습. 2 <Amazing Christmas! Amazing Friends!> 콘서트에 초대된 영화배우 한지민. 3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장을 찾은 박미배 씨. 4 콘서트홀 내부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인테리어 장식들. 5 아모레퍼시픽 모델로 활동 중인 조인성의 감사 인사는 장내를 훈훈하게 했다.

뮤지컬 <에비타>

뮤지컬 <에비타>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캣츠>를 탄생시킨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작품으로 2006년 국내 초연되어 20~30대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관객을 넓히며 흥행을 기록한 작품이다. 한국뿐 아니라 2012년, 세계 공연의 메카인 브로드웨이에서도 <에비타> 리바이벌 공연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적인 문화계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에비타>는 사생아로 태어나 삼류 배우를 거쳐 한 나라의 퍼스트레이디에 올랐던 여인 에비타의 인생과 사랑을 드라마틱하게 그린 작품으로,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름답고 웅장한 노래와 함께 흥미롭게 펼쳐진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곡 'Don't Cry For Me Argentina'와 탱고, 왈츠, 폴카 등 화려한 춤. 여기에 리사, 박상원, 이지훈, 정선아 등 실력과 배우들의 캐스팅은 관객의 눈과 귀를 매혹시키기에 충분하다.

일시 2011년 12월 9일~2012년 1월 19일 **장소** LG아트센터 **문의** 1577-3363 **관람료** VIP석 13만원/R석 10만원/S석 8만원/A석 5만원/B석 3만원



뮤지컬 <닥터 지바고>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장편소설 <닥터 지바고>가 드디어 한국 관객들에게 뮤지컬로 찾아온다. 토니상 2회 수상에 빛나는 연출가 테스 맥아너프의 연출로 주목받는 뮤지컬 <닥터 지바고>는

이미 2011년 호주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마친 바 있다. 러시아 10월 혁명이 일어난 격변기, 의사이자 시인이었던 유리 지바고의 파란만장한 삶과 사랑을 그리고 있는 뮤지컬 <닥터 지바고>. 주인공 역에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오페라의 유령>이 낳은 최고의 스타인 홍광호가 출연하며, 한류 스타로 발돋움한 배우 주지훈이 캐스팅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러시아혁명의 시대상을 반영한 흑백 영상의 조화는 기존 대형 공연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함과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일시 1월 27일~6월 3일 **장소** 사롯데씨어터 **문의** 1588-5212 **관람료** VIP석 13만원/R석 11만원/S석 9만원/A석 7만원

조선화원대전

김홍도, 장승업, 이인문 등 대표적인 화원화가의 작품을 통해 조선 시대의 '화원'을 조명한 첫 전시<조선화원대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왕실 회화부터 일반 회화까지 다양한 장르를 총망라한 대규모 전시이자 뛰어난 필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와 공간에서 활동했던 화원 화가들의 모습을 조명한 전시다. 특히 연대별 구성이나 특정 화가에 집중된 전시 방식을 지양하고, 화원 화가들의 활동상을 왕실과 조선 화단으로 나누어 살펴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가들의 작품은 물론, 필력을 바탕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던 화원 화가들의 활동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전시를 통해 조선 최고의 예술가 집단이었던 화원 화가들의 미의식과 작품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시 1월 29일까지 **장소** 삼성미술관 리움 기획전시실 **문의** 02-2014-6900 **관람료** 일반 7,000원/초중고생 4,000원



이국적 풍미를 가미한 한식 정찬 〈노블파블〉



이태원 골목 안의 건물 2층에 위치한 〈노블파블(Noble Table)〉은 '귀족의 테이블'을 뜻하는 말로, 이곳의 인테리어와 안락한 분위기, 그리고 풍성한 식사의 삼박지는 한마디로 백작의 정찬이 부럽지 않게 해준다. 노블파블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한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때문인데 이름부터 재미있는 청국장문어샐러드, 해파리새우돌돌말이 등 한국의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이고 있다. 부드럽게 데쳐 숯불에 살짝 구운 문어를 겨자소스와 청국장 베이스의 드레싱에 버무린 청국장문어샐러드, 다양한 해산물로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낸 고추장나폴리탕은 미식가들의 오감을 자극하기 충분하다. 이곳을 찾는 또 하나의 재미는 음식을 내놓는 그릇이 모두 도예가 전성근과 신상호의 것이라는 것. 음식뿐 아니라 음식을 담은 그릇에도 정성을 기울이는 노블파블에서 지인과의 소중한 만남을 마련해보자.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74-33, 2층 **영업시간** 17:00~2:00(익일) 문의 02-790-5848



한옥의 재발견 〈스미스가 좋아하는 한옥〉

〈스미스가 좋아하는 한옥〉은 화덕 피자&파스타 전문점이다. 한옥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이곳은 북촌 옛집의 정취와 현대적 감수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공간 안에 다이닝과 카페가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한옥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다. 약 500㎡ 규모의 한옥은 레스토랑과 카페테리아로 나뉘어 있으며, 바질 페스토 소스 링귀네, 보타르가 링귀네 등 각종 파스타와 롬바르디안 피자나 나폴리안 피자 등 정통 이탈리식 피자를 맛볼 수 있다. 더불어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 개관을 앞두고 '미술관 옆 한옥'이라는 컨셉트로 내부 인테리어를 확장한다고. 여유로운 주말에 찾는다면 시간이 멈춰 선 듯한 북촌의 한옥마을을 찾는 또 하나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위치 서울시 종로구 서간동 62-1 **영업시간** 11:00~22:00 문의 02-722-7003

승고함이 깃든 정신의 문화, 프랑스 부인들의 마음에 새겨지다

설화수는 지난해 북촌문화센터에서 열린 <설레임-집들이展> 기간 중 한불부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문화 클래스를 열었다. 한국 전통문화를 후원하는 문화 메세나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설화수와 의 아름다운 동행.



조선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인 나혜석이 사랑했던 도시, 파리. 그녀에게 프랑스가 자유와 높은 미의식의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준 하나의 계기는 프랑스의 한 가정에 머물렀을 때였다. 여성 참정권 운동 회원으로 저술 활동을 하는 샬레 부인은 “가정의 살림을 주도하여 책임지는 현모양처이자 자신의 매력을 잃지 않는 여성이며 저술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회 활동가.” 이것이 나혜석을 매료시킨 프랑스의 모습, 프랑스 여성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세월은 흘러 한국·프랑스 수교 125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제2의 샬레 부인과 나혜석이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교류했으며, 더욱더 높은 자의식과 아름다움을 품은 여성들로 성장했다. 그중 한불부인회(CFC: Cercle Franco-Coréen)는 1974년 당시 주한 프랑스 대사이던 페리에 드 라 바티의 부인에 의해 제창된 모임. 주한 프랑스 외교관들과 상사 주재원들의 부인들, 프랑스에 산 적이 있거나 프랑스인과 결혼해 프랑스어가 능통한 한국인 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설화수는 한불부인회 회원들을 초대해 파리를 사랑했던 나혜석의 나라, 한국의 마음을 나누었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북촌문화센터에서 열린 <설레임-집들이展> 기간 중 한불부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문화 클래스를 열 것. <설레임-집들이展> 참여 작가가이기도 한 북촌 한옥마을 내 우리빛깔공방 최정인 작가가 한불부인회 회원들에게 전통 책갈피 만들기를 강의했다. 고운 비단을 바느질한 책갈피의 끝엔 선추 장식을 했

는데, 선추 끝엔 부귀영화와 복을 의미하는 박쥐를 거꾸로 매달아 복이 쏟아지길 기원했다. 책갈피의 장식 하나에도 깊은 의미를 두고 정신을 깃들게 한 우리의 전통공예를 배우는 그녀들의 진지한 모습을 나혜석이 본다면 어떤 감흥을 느낄까. 승고함이 깃든 정신문화는 세계 곳곳으로 그윽한 향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되 찾고 발굴해 이를 널리 알리는 선봉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설화수의 활동은 더욱 귀하게 열매 맺고 있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이은숙



선조들의 마음을 보는 창, 민화

소박하며 익살스럽다가도 누구보다 날카롭고
진지하게 대중의 삶을 그려낸 민화. 그 속에는 우리네
선조들의 창의성과 시대상이 담겨 있다.



〈Sulwhasoo〉 독자 참여 코너

‘전통공예 배우기’

매호마다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를 마련하는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에서 다양한 공예 기법으로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맞게 재해석한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전통공예 배우기 칼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독자엽서를 통해서 응모 가능합니다.

한가로운 주말, 날씨는 추워졌지만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북촌 한옥마을로 여행을 권한다. 사대부들의 집성촌이었던 북촌은 옛 모습의 한옥을 볼 수 있는 서울 도심의 문화 여행지다. 그중 북촌문화센터는 우리네의 다양한 전통공예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곳이다. 제법 쌀쌀한 겨울 날씨, 북촌문화센터에서 김완수 독자를 만났다. 친구이자 동료요, 멘토 같은 남편과 함께 젊은 날 앞만 보며 열심히 사업을 일궈낸 세월이 즐거웠다고 말하는 김완수 독자. 이제는 아이들도 잘 성장하고 사업도 안정되어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그녀와 함께 배워볼 전통공예는 민화.

민화는 조선 시대에 유행했던 하나의 화풍으로 생활 풍습에 따라 제작된 대중적인 실용 회화를 말한다. 민화는 백성의 생활에서 우리나라의 평범하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생활철학이 그림 속에 구체화되면서 민중의 생활 속에 정착하고 존속해왔다. 꽃을 중심으로 새나 나비 등을 함께 그린 화조 민화, 한국의 산수를 그린 산수 민화, 무교에 얽힌 신앙과 풍습을 담은 민속 민화, 도덕적 윤리관을 강조했던 교화 민화 등 민화는 당시 선조들의 창의성과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기도 하다. 주로 민간신앙에 기반을 둔 주술적 목적의 그림이 많았기에 인간의 삶을 위해 인간 본연의 소박한 신앙의 조형적 표현으로 만들어졌으며 만인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멋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절

의 단청과 민화들을 유지 보수하는 작업을 직업으로 삼으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민화들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는 송인정 강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책거리의 밑 작업에 쓰이는 아름다운 빛깔의 물감들을 보고 감탄하는 김완수 독자를 보고 있으니 이 또한 훗날 후손들이 볼 아름다운 일상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이기원 도움 주신 곳 서울시 북촌문화센터(02-3707-8388, <http://bukchon.seoul.go.kr>)





page 24 | **Quality Life**

<Quality Life> is a column about tracing the steps of Korean ancestors to explore the lifestyles and aesthetics of the past beyond cultural heritages. In this issue, learn how women satisfied their five senses in the Joseon Dynasty, with the various uses of incense for sleeping, the efforts to find the source of beauty in stability through walking and meditation, and the women of boudoirs who borrowed the wisdom of Korean medicine to practice various pressure techniques. Look into their wisdom to be able to use sewing, poetry and paintings, and Gayageum to calm your body and mind.



page 38 | **The World's Design Hotel**

<The World's Design Hotel> introduces the world's design hotels that are glowing with unique personalities, from the hotels built by renowned designers to the design hotels of fashion brands. Hotels are no longer just for travelers' lodging; they now offer rest beyond visual pleasure. This issue introduces Fox Hotel in Copenhagen, Denmark, known for its extraordinary designs.



page 44 | **Art Class**

<Art Class> is a column about exhibitions recommended by renowned art critics in Korea for art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This issue introduces 'Tell Me, Tell Me', an exhibition in celeb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friendship of Korea and Australia. Meet various Korean artists, including Nam June Paik, U-Fan Lee, along with a number of Australian artists, including Brook Andrew who is from a native tribe and works with the shape of her tribe's shield.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o acquire information on Australian art that has been rather alien to Koreans.



page 50 | **The Encounter of Tradition and Modernity**

<The Encounter of Tradition and Modernity> is a column that explores the wardrobes, food, and homes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introduces artworks that beautifully harmonize tradition and modernity. This issue shows a photography collection of the artworks presented at 'Excitement', an event sponsored by Sulwhasoo. Let's enjoy a world of art and design that attempts to blend tradition and modernity based on works.

page 60 | **Sulwha Cultural Exhibition - Meet the Master**

<Sulwha Cultural Exhibition - Meet the Master> is where you can meet the skills of the masters preserving and developing Korean tradition to realize the beauty and superiority of Korean traditional craft. For this issue, we interviewed Kim, Yun Dong, a master artist who participated in the Sulwha Cultural Exhibition, which is Sulwhasoo's beautiful means of celebrating Korean culture. His philosophy is that the vessels demanded by our time resemble the people who live in our time. Listen to his story of porcelain as a tool for communication.



page 68 | **In Search of a Space for Rest**

<In Search of a Space for Rest> introduces tourist attractions that offer comfort and healing to modern people for peaceful mind. This issue introduces the pavilions in palaces for kings and the nobility, including Buyongjeong in Changdeokkung Palace and the pavilions around Ongryucheon.



page 74 | **Trip of Korean Music**

Western music is known as the music of the heart, whereas Korean traditional music is known as the music of the lung. Gagok is the genre of music that requires slow breathing in this fast-paced world. <Gagok : Jeong Ga Ak Hoe Pungryu3> has been nominated for the 54th GRAMMY AWARDS' Best World Music Album and Best Surround Sound Album. This issue introduces the encounter of Gagok, registered as the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by UNESCO in 2010, and Gwangajeong of Yangdong Village in Gyeongju, the World Cultural Heritage.



page 84 | **Sullocdawon(雪綠茶園)**

<Sullocdawon> is a column that spotlights the reemerging tea culture for the best tea-drinking experience. This issue introduces O'sulloc Orchid Blossom Flavored Green Tea, a special tea that captures the flavor of the Jeju orchid whose flowers bloom for only 10 days in a year. This tea table for the New Year is filled with the subtle fragrance of blossoms.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 여러분을 위한 고품격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엽서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독자께서 보내주신 내용은 더욱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설화수 제품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 방법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내의 독자엽서로 우편을 이용해서 응모

응모 마감 2012년 2월 15일까지

증정 선물 설화수 윤조에센스 외

당첨자 발표 2012년 3/4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문의 02-709-5525



설화수 윤조에센스 10명

설화수 윤조에센스는 촉촉함을 더해 피부를 윤택하게 보필해주는 한방 에센스입니다. 세안 후 가장 먼저 피부에 바르면 메마르기 쉬운 피부에 윤기를 주어 다음 단계의 흡수 및 효능을 높이는 부스터 기능의 제품입니다. 문의 080-023-5454



오설록 우전(雨前) 5명

오설록 우전은 제주의 설록 직영 다원에서 이른 봄 정성껏 딴 첫물차를 전통 방식으로 뒤어 만들어, 구수한 맛과 향을 간직한 고급 우전차입니다. 최고의 잎만 따서 세심한 공정을 거쳐 만든 우전의 깊고 풍부한 맛은 지천 현대인의 몸과 마음에 여유를 선사합니다. 문의 080-023-5454

11/12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윤조에센스(10명)

- 김미선** 서울 구로구 구로2동
- 김연화**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 김정희** 강남구 도곡동
- 도미란** 경기 고양 일산동구 풍동
- 박옥수** 경기 광명시 광명1동
- 위영선**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 윤범진** 대구 북구 복현2동
- 임나령**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 차영희** 부산 동래구 명장1동
- 한윤경** 강원 춘천시 석사동

오설록 우전(5명)

- 소숙자** 부산 동래구 온천3동
- 오영옥**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 김은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
- 송수경** 전북 익산시 모현동
- 송숙자** 부산 동래구 온천1동